

충남여성

Chungnam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vol. 28

2009년 통합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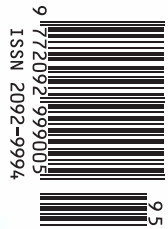
충남여성

Chungnam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vol. 28

충남여성은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을 도민 여러분께 알리고 드리고
활용한 의견을 수렴하는 매체기능을 수행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여성정책 젠더 이슈를
기획한 특집호를 발간해 주제별로 정책 및 교육관련 배움터 역할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충남여성

2009년 통합호 vol. 28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녹색성장과 여성 일자리
녹색 성장을 위한 여성 전문인력 양성 방안
(주)놀부NBG 김순진 대표

충남 다문화속으로
제3회 충남 다민족·다문화 축제
다문화세미나관련 소식

아동, 가족과 사회환경
지역아동 성폭력의 현황과 예방
「2009 충남 지역아동센터의 평가사업」을 마치면서



충남여성들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평등하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글로벌 여성·가족·복지정책 연구 및 교육기관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1세기 일류복지국가, 남녀가 함께하는
행복한 가족과 사회에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이 함께 합니다.



Contents *

Chungnam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vol. 28

46



- 04 인사말
- 06 특집 1. 녹색성장과 여성 일자리
 - 녹색 성장을 위한 여성 전문인력 양성 방안
 - 지역여성 포커스

- 24 특집 2. 충남 다문화 속으로
 - 다문화 인식 관련 논단
 -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탐방
 - 제3회 충청남도 다문화 다문화 축제
 - 다문화가정 방문교사 수기
 - 다문화세미나관련 소식

- 44 특집 3. 이동, 가족과 사회환경
 - 지역아동 성폭력의 현황과 예방
 - 지역 전문가 인터뷰
 - 지역 전문센터 인터뷰
 - 「2009 충남 지역아동센터의 평가사업」을 마치면서

64



- 64 Zoom In
 - 2009년 본원주요 행사 화보
- 68 국제학술교류
 -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젠더연구소 다문화 관련 간담회
- 72 2009년 교육프로그램
- 78 지역 여성계 소식
 - 지역여성 수상소식
 - 충남 여성 포럼 29회·30회·31회

82



- 82 여성 관련 기관 탐방
 - 여성 긴급전화충남 1366
 - 충남여성장애인연대
- 86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여행지
 - 예산 천리포수목원
- 90 충남의 역사와 문화를 찾아서
 - 2010 세계대박제전
- 92 지역 특산물
- 94 충남여성을 위한 도서 소개



2009년 통합호

발행일 | 2009년 12월 발행처 |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314-924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191-5
발행인 | 김경숙 전화 | 042-825-1823 팩스 | 042-825-2461
기획·편집·디자인 | (주)봄인터랙티브미디어 042-633-7800

개원 10주년을 맞이하여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은 올해로 개원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본원은 1999년 7월, 충남지역 여성의 인권향상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창립되어 지난 10년 동안 충남과 한국의 여성정책 발전에 기여하며, 우리 지역의 중추적인 연구와 교육기관으로 성장해왔습니다.

돌아보면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의 지난 10년은 한국과 충남의 여성·가족·사회복지정책의 발전과 함께 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과 충남의 제반환경은 크게 달라졌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원의 조직체제와 사업방향도 변천을 거듭했습니다. 개원 당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의식의 확산이라는 과제로부터 출발하여 지금은 가족과 노인·장애인, 아동·청소년을 아우르는 복지 정책으로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였고, 다문화사회의 도래라는 시대적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 및 교육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개원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몇 가지 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10년의 역사와 성과를 시기별로 정리하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10년사>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는 양성평등에 기여한 복지사회 충남 구현을 위한 Think Thank로서의 선구적 소임을 위해 노력한 10년 세월의 기록으로써 개원 당시의 설교와 포부, 사진과 산문으로 반추해보는 지난날들, 조직의 변천, 연구 및 교육실적 등 그간의 자취를 모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또 다른 10년의 역사를 준비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올해에는 <충남 여성의 삶과 역사>를 통시적으로 조망하는 작업도 수행합니다. 오늘날 충청남도 여성들의 삶과 변화를 이루고 있는 역사적 연원을 살펴보고, 그들의 삶의 궤적을 통해 충청남도 여성들의 역사적 위상과 이미지 제고, 충청남도 여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올해에는 <충남 여성의 삶과 역사>를 통시적으로 조망하는 작업도 수행합니다. 오늘날 충청남도 여성들의 삶과 변화를 이루고 있는 역사적 연원을 살펴보고, 그들의 삶의 궤적을 통해 충청남도 여성들의 역사적 위상과 이미지 제고, 충청남도 여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둘째, 국제적 수준의 여성·가족·사회복지정책 연구 및 교육기관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를 위해 해외의 주요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학술 교류협정(MOU)을 체결하고 국제학술 세미나와 공동연구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개원기념 국제세미나에서는 여성폭력, 노인학대, 지방정치 참여 등 4개 분과에서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발표자들을 모시고 학술회의를 개최했고, 한국정치학회 세계학술대회 젠더분과 학술회의를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국내 우수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2009년에는 베트남 하노이국립대학 및 아시아 여성 교류·연구 포럼과 MOU를 체결하고, 주영 한국문화원과 다문화·다문화 관련 국제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여성·가족·사회복지정책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도정의 주요 이슈 및 현안과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 교육사업을 수행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그중에서 <충남 다문화종합포털사이트 구축 및 운영>은 지난해 본원에서 제시한 도내 다문화가족 지원 중·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웹상에서 다문화가족에게 지역밀착적인 다양한 정보를 필리핀, 베트남, 몽골 등 7개 언어로 제공함으로써 한국어 습득이 미흡한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들에게 현실적인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노인생활실태 조사 및 DB 구축> 역시 지난해 본원에서 수행한 충남 고령사회 맞춤형 서비스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도내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최초의 전수조사입니다. 이 사업은 복지정책과의 주력사업 중 하나로 조사결과는 향후 충남의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올해에는 일자리 창출과 지방자치체제의 역할,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등 중앙정부 및 충남지역에서 제기되는 당면이슈를 중심으로 전담 중심의 <충남정책

포럼>과 <충남미래포럼>을 새롭게 운영하였습니다. 연구사업과 더불어 본원의 주요기능 중 하나인 교육사업의 경우에는 수요조사에 기초한 한국어강사 보수교육, 중년기 여성결혼이민자 리더육성 및 멘토 교육, 여성폭력상담원 보수교육 등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여성인력의 전문·심화과정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교육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창업이나 취업을 통해, 실무자들은 현장에서의 활동을 통해 충청남도의 리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은 이제 다가오는 10년을 향한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충청남도의 정책수요와 도정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연구와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여성정책은 물론 특히 한국과 충남의 저출산·고령화사회, 다문화사회의 미래 전망과 비전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여 충남도의 중·장기적 발전방향과 정책대안 마련에 힘을 쏟을 것입니다.

오늘의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이 있기까지 지난 10년 동안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께 이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은 더 나은 세상과 새로운 10년을 향해 도전해나갈 것입니다. 충청남도민 그리고 여성들의 끊임 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희망과 기쁨이 함께하는 경인년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09년 12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김경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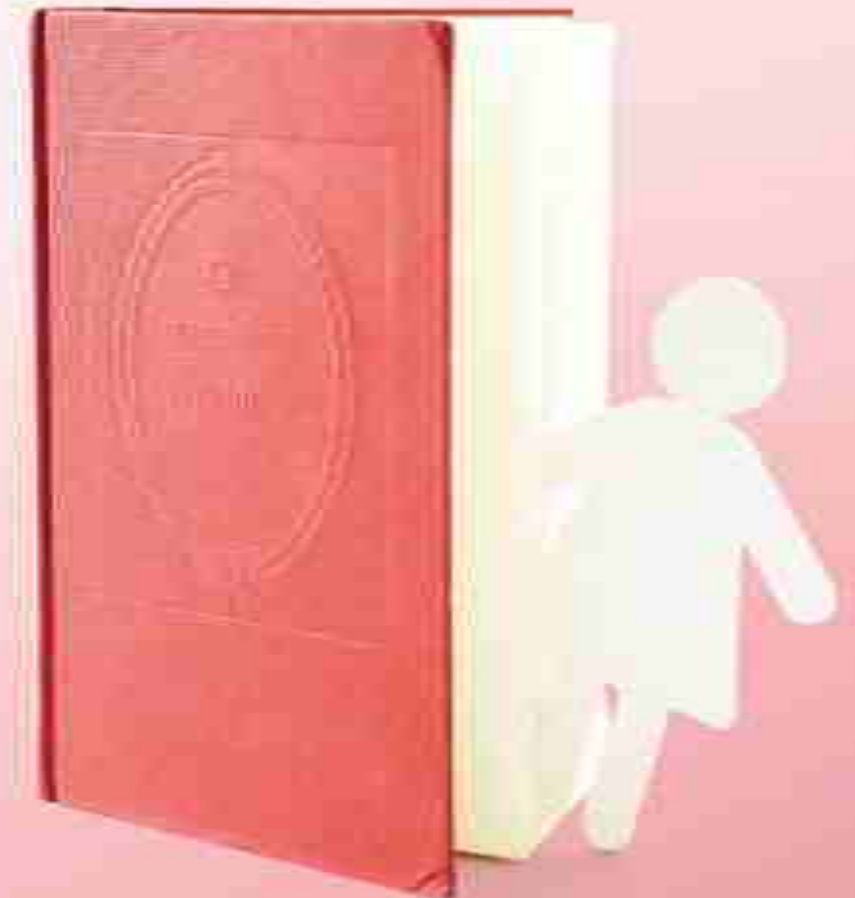
녹색성장과 여성 일자리

여성이 희망, 여성이 곧 경쟁력이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 가는 여성은 충남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 세계 경쟁력의 열쇠를 쥐고 한걸음 더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08_ 녹색 성장을 위한 여성 전문인력 양성 방안 20_ 지역 여성 포커스



녹색 성장을 위한 여성 전문인력 양성 방안¹⁾



김종철 박사 < 본원 선임연구위원 >



최근 우리나라 정부는 녹색성장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15 경축사에서 녹색성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녹색성장이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며,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 국가 패러다임이다.”



녹색성장 일자리하면 ‘성친화적일 것’은 기대감이 있지만 녹색성장과 관련된 일자리는 오히려 전통적으로 남성친화적인 건설이나 공학 분야에 치중되어 있어서 녹색 성장과 관련된 여성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범국가적인 막대한 예산을 녹색성장 분야에 투입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한 여성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성 형평성에 어긋나는 성 평등 정책이 될 수 밖에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녹색성장과 관련된 녹색 일자리 유형을 살펴보면 신 재생에너지 분야, 환경 분야 등으로 나누어 지는데, 이 중 대부분이 건설이나, 공학, 전기 등인데 이는 기존의 남성 친화적인 분야에 치중되어 있다.

<표1> 녹색 성장 관련 일자리

분 야	산 업	직 종
신기 생 에너지	풍력	설계공· 기사, 물방아 설계사, 관금속 기사, 전기 장비 조립사, 건설장비 운전사, 농업용 트랙 운전사 생산관리인 등
	태양광	전기공· 기사, 전기 기술사, 기계기술자, 용접공, 금속 조립인, 장비 조립 설치 기사, 건설 관리인 등
	바이오 ·· 생물 연료	·· 공· 기사, ·· 자, ·· 장비 운전사, ·· 기술자, 혼합기계 기사, 농업용 트랙 운전사, 농업 관리자, 농산물 감독관 등
환경	대기오염	설계공· 기사, 대기 설비 기사,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계 시공사 등
	폐기물 관리	폐기물 처리 기사, 폐기물 수집인, 트랙 운전사, 유해물질 제거 기사, 보수 및 수리 기사, 설비공· 기사, 중장비 기사 등
	물처리 및 폐수처리	수질 설비 산업기사, 수질 관리기사, 하수도관 정비 및 관리인 등
기타	대중교통	토목기사, 도로 설치사, 전기기사, 용접공, 버스 운전사, 교통 감독관, 발송인 등
	건물 개조	전기기사, 난방기 설치사, 목수, 건설 정비 운전사, 지붕 관리사, 단열기사, 건물 점검인 등

1) 본 글은 여성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2008,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이다.

최근 녹색 성장¹⁾ 강조되면서 충남지역의 환경기술 기업체²⁾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충남의 산업은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환경오염 및 오폐수 문제를 처리하는 환경기술 업체³⁾의 역할을 그만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충남의 환경기술 업체⁴⁾의 수요가 증대하는 환경기술 전문인력을 고용하기가 어렵지 않은 것만 아니라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해주는 시스템도 전무한 상태이다.

환경기술 분야에서의 여성 인력의 양성은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 특히 전문대졸 이상의 경력단절 여성에게도 일자리 창출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녹색 성장에 기여하는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후 본 글에서는 충남에서의 환경기술 전문인력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 분야로의 여성의 취업 가능성을 분석하며,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환경기술 분야 직무분석 등을 통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한 환경기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활용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직종 선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수요 조사는 2008. 7. 14 - 8. 12(1개월) 기간 동안 워크넷(www.worknet.go.kr)에 등록된 충남지역의 산업별/직종별 구인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해당 기간(1개월) 동안 구인⁵⁾ 10인 이상 발생한 직종을 정리한 후에 그 중에서 여성취업⁶⁾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전문 직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다구인 전문직종으로는 품질관리, 생산관리, 기계캐드원, 배송납품운전원, 지게차운전원, 건물토목시공 기술자, 건축시공기술자, 플라스틱사출성형, CNC선반 조작원, 수질환경기술자 10개 직종으로 나타났다.

〈표2〉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직종 선정의 과정

단위 | 명

구 분	1단계 : 10인 이상 구인 직종의 선정	2단계 : 여성 취업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분야에 전문 직종 선정	3단계 : 여성 취업이 가능한 전문직종의 선정
(1) 경영 회계 사무 분야	경리사무 품질관리 총무사무 생산관리 단순경리	품질관리 생산관리	품질관리 생산관리
(2) 문화 예술 · 방송인 분야	기계캐드 원	기계캐드 원	기계캐드 원
(3) 운전 · 운송 분야	배송납품운전 원 지게차운전	배송납품운전 원 지게차운전	
(4) 영업 · 판매직 분야	일반영업		
(5) 엔지니어 · 기술자 분야	상표부착 등 생산관련 단순 노무자 건물토목시공 기술자 전기 · 전자 부품 및 제품조립 및 검사 원 건축시공기술자 플라스틱사출성형 CNC선반 조작 원 수질 환경기술자 농업단순노무자	건물토목시공 기술자 건축시공기술자 플라스틱사출성형 CNC선반 조작 원 수질 환경기술자	수질 환경기술자
(9) 서비스직 분야	주방보조 원 식경미 · 원	-	
(11) 의료 · 간호 분야	간호조무사	-	

여성 취업⁷⁾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10개의 직종 중에서 여성 취업 가능성⁸⁾ 비교적 높은 직종을 선정한 결과 품질/생산관리, 기계캐드원, (수질)환경기술자 3가지 직종⁹⁾ 최종을 선정하였다. 10개의 전문 직종 중에서 이 3가지 직종¹⁰⁾의 여성 취업 가능성¹¹⁾ 높은 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천안종합고용지원센터의 취업지원팀 2인, 능력개발팀 2인, 6인과 세일직업전문학교 프로그램 기획자 1등 총 7인의 자문의견을 받았다.

이후 논의에서는 품질/생산관리, 기계캐드원 분야는 제외하고, 녹색 성장과 관련된 일자리로서 환경기술 분야에서의 여성 취업 가능성과 직무 분석 등을 통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한 환경기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환경기술자의 직무분석 및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가능성 분석

(1) 워크넷을 통한 직무분석

워크넷에 등록된 환경기술관련 직종은 환경공학기술자로서 그 정의는 “환경공학기술자는 다양한 공학원리를 활용하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환경, 토양환경, 해양환경, 작업장환경, 생태계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험, 분석, 연구하는 사람임”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 업무, 자격요건, 관련 자격증 등은 <표3>과 같다.

<표3> 환경공학기술자의 직무분석

구분	내용
정의	• 환경공학 기술자는 다양한 공학원리를 활용하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환경, 토양환경, 해양환경, 작업장환경, 생태계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험, 분석, 연구하는 사람임
주요업무	• 환경공학 기술자는 환경오염물을 측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며 환경보전에 필요하다면 다양한 공학적인 기술도 개발함 •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제거하는 처리시설을 설계 및 시공 등에 관한 연구를 함 • 매립지를 설계하는데는 환경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고장난 것은 수리함 • 장기적으로는 환경시설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오염방지요 환경보전에 대한 정책 수립에 참여하며 의뢰인이나 고객의 환경 분야 전문역을 맡기도 하고 환경영향평가업무도 수행함
자격요건	• 환경공학이나 화학 등을 전공해야 산업에 유리함 • 연구개발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가 요구됨 • 국가기술자격으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대기관리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등 자격증을 취득하면 됨
관련자격증	• 대기관리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소음진동기술사(기사, 산업기사), 폐기물처리기술사(기사, 산업기사), 토양환경기술사(기사),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자연생태복원기사(산업기사), 대기환경기사(산업기사), 수질환경기사(산업기사), 생물분류기사
직업기서	• 상·하수도 엔지니어, 대기오염방지 및 제거기술엔지니어, 폐기물처리 엔지니어, 폐수처리엔지니어, 청정기술연구사, 매립지 설계자, 소음진동방지기술엔지니어, 환경기전설비 엔지니어, 환경영향평가엔지니어 등

출처 : www.worknet.go.kr

(2) 구인정보를 통한 환경 기술자의 직무분석

연봉 1800만원 이상(월 급여 150만원 이상), 상용직에 해당되는 충남소재 업체를 2008년 9월 23일 현재 까지 등록된 구인업체 중에서 순서대로 분석하였다. 분석된 직무내용을 종합해 보면 환경관련 인허가 및 설계/시공,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환경공학기술업무, 오수처리시설관리, 폐수처리시설관리, 생산관리, 토양정화업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공장폐수, 수질검사/폐수처리, 오염방지 등으로 나타났다.

요구하는 주요자격은 수질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 토양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일반기계기사이며, 이중에서 수질환경기사를 필요로 하는 기업은 7개, 대기환경기사를 필요로 하는 기업은 1개, 폐기물처리환경기사를 필요로 하는 기업은 2개, 토양환경기사를 필요로 하는 기업은 1개로 나타났으며, 대개는 복수의 자격증중 어느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문서작성, 스프레드시트 등을 요구하는 기업체가 5개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4> 환경기술자의 구인정보를 통한 직무분석

업체명	직무내용	자격 / 우대조건
대한엔지니어링	환경관련 인허가 및 설계, 시공	수질/대기 환경기사 환경 / 공학 문서작성, 스프레드시트, 프리젠테이션, 회계프로그램, 캐드, 포토샵
(주)두현이앤씨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일반기계기사/전기기사 전기공학 / 기계공학
(주)케이티앤리	환경공학 기술업무	대기 환경기사/환경
산업그린텍(주)	대기 및 수질 환경기사	대기 환경기사, 수질 환경기사 문서작성, 스프레드시트
(주)세진	오수처리시설관리	수질 환경기사, 수질 환경산업기사
영원환경기술(주)	폐수처리시설관리	수질 환경기사, 수질 환경산업기사
(주)오케이케이	환경설비, 기계설계, 생산관리	일반기계기사 문서작성, 스프레드시트, 캐드
(주)에코플랜	토양정·업	토양 환경기사, 수질 환경기사 문서작성, 스프레드시트
(주)가람테크	오수처리시설관리	수질 환경기사, 생물 / 공학 / 환경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폐기물 환경산업기사
신원환경개발(주)	폐기물처리, 대기 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환경기사, 폐기물 환경산업기사
(주)광야환경	공장폐수, 수질검사 / 폐수처리	
(주)유성환경개발	오염방지 / 시설설계	수질 환경산업기사, 문서작성, 스프레드시트

(3) 구인정보를 통한 경력단절 여성의 환경기술자 취업 가능성 분석

연봉 1800만원 이상(월급 150만원 이상), 상용직에 해당되는 업체를 2008년 9월 23일 현재까지 등록된 구인업체 중에서 순서대로 12개를 대상으로 경력조건, 연령 등을 분석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취업 가능성은 경력에 대한 조건이 없고, 최대 연령이 35세를 넘어도 되는 경우는 여성의 취업가능성이 높음(경력단절 여성의 취업가능성이 비교적 높기 때문), 경력은 관계없으나 연령이 30세 이하이면 중간, 경력을 1년 이상이라도 요구하면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환경기술자의 경우 12개 업체 중에서 여성의 취업가능성이 높은 곳은 6개로 약 50%에 해당되고, 중간은 2개로 10% 정도로 나타나,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가능성은 50%~60% 정도로 추정된다.

〈표5〉 경력단절여성의 환경기술자로서의 취업 가능성 분석

업 제 명	연 령	경 력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가능성
대한엔지니어링	22~40세	3년 이상	낮음
(주)두아이엔씨	20~40세	관계없음	높음
(주)세이티앤리	30~40세	관계없음	높음
삼진그린텍(주)	25~35세	관계없음	높음
(주)세진	23~29세	6개월 이상	낮음
영원환경기술(주)	25~40세	관계없음	높음
(주)오에치케이	30~40세	3년 이상	낮음
(주)에코플랜	30~50세	-	높음
(주)가람테크	25~40세	신입	중간
신원환경개발(주)	20~40세	신입 또는 2년 이상	중간
(주)광진환경	관계없음	관계없음	높음
(주)유성환경개발	25~40세	1년 이상	낮음



(4) 기업체 관계자 인터뷰를 통한 환경기술 분야의 여성 직업훈련 방향

환경기술 분야의 경우 대기환경기술, 수질환경기술, 토질환경기술, 폐기물처리 등의 분야에서 수질환경기술 분야의 수요가 가장 많으나 대기환경기술도 점차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환경기술 관련 업체에서 여성을 채용할 경우에 기대하는 조건은 환경관련 기술 중 어느 한 가지에 능통하면 된다는 의견과 엑셀, 문서작성에도 능통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환경기술 관련 구인업체를 대상으로 여성이 환경기술자에 지원할 경우 여성에게 기대하는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표6〉 환경기술 관련업체의 여성인력 채용 조건

연번	내 용	응답자수 (비율)
1	수질환경, 대기환경 등 어느 한 가지 환경기술에 능통	3명
2	수질환경, 대기환경 등 2가지 이상 환경기술에 능통	1명
3	1가지 환경기술에 능통하고 엑셀, 문서 작성에도 능통	10명
4	2가지 이상 환경기술에 능통하고 엑셀, 문서 작성에도 능통	1명
	계	15명(100%)

여성 환경기술 뿐만 아니라 엑셀이나 문서 작성 등에 능통하다면 여성을 채용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이 6개 업체, 고. 하겠다가 7개 업체, 채용 의사가 없다가 2개 업체로 나타났다. 여성을 채용하지 않겠다는 업체의 경우는 해당 직무가 무거운 짐을 부여하거나 힘든 일을 해야 하는 현장 방문 작업이 주요 담당 업무가 될 때 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환경기술직에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엑셀, 문서작성 등의 기능을 겸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환경기술 전문과정 프로그램

(1) 교육프로그램의 목적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충남의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환경기술 전문가 및 중소기업 실무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더불어 충남의 기업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

(2) 교육 프로그램 설계의 기본 방향

-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고 실제 수행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 수질환경기술을 핵심으로 하고 여기에 대기환경 기술, 폐기물처리 기술, 문서관리, 회계관리 등을 추가한다.
 - 현장 실습 및 인턴제를 포함하는 교육과정으로 설계한다.
 - 필요 시 방과후 녹색환경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내용을 추가한다.
- 이는 취업이 어려운 여성에게도 교육훈련과 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3) 교육 기간

교과교육과정은 5개월, 현장실습 및 인턴제는 2개월 총 7개월 과정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4) 교육운영의 기본 방향

- 교육생 선발 - 중소기업에 대한 확고한 취업의지를 가진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함
(운전면허 소지자는 특별히 우대하도록 함).
- 강사선정 - 해당분야 전문가 및 중소기업체의 관리자/실무자를 활용함.
-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여성인력개발센터, 대학교 부설 환경기술센터 등 상호 네트워크화 된 형태로 운영함.

(5) 교육의 기본 내용

중소기업체 인사담당자 및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본 과정에서 여성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7〉 환경기술 및 중소기업 실무능력개발과정의 기본 교육 내용

교육주제	교육내용
중소기업 운영에 대한 이해	중소기업 운영 및 경영 사례 발표
	중소기업의 생존 및 발전 전략
	여성의 중소기업 성장발전에 대한 기능과 역할
	여성 직업의식의 중요성
환경기술	중소기업의 운영 및 관리 사례 발표
	기후, 환경 및 환경의 중요성
	실험 및 분석
	수질 분석 시험
	공장별 수질 관리
	수질 관리 데이터 작성 및 자료정리
	환경법규
	환경관련 업무 상담 및 서류처리
	환경기술 영업 / 상담
	환경기술 현장 업무문제 해결
	대기, 환경 기술
	폐기물처리 기술
문서 / 서무 / 회계 영업 관리	한글
	엑셀
	PPT
	제조업 경리 업무의 실제 - 더존회계프로그램 중심
여성 리더십 개발	거래처 및 영업 관리 여성 리더십 개발
	남성 근로자 관리법
	조직 내 대인관계
	여성 리더십 개발
	기초 역량 개발
	회의진행 방법
프리젠테이션	

■ 본 프로그램의 활용방안 및 추진 체계

본 프로그램의 활용방안

본 프로그램의 이수자는 다음의 4가지 방향에서 활용할 수 있다.

〈표8〉 본 프로그램의 이수자에 대한 활용 방안

구분	내용
환경기술 실무자 양성 및 기업에 취업 연계	오페수 처리 등 환경기술 관련 업체에 인턴제로 추천한 후 해당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채용하도록 권장함
환경 변화 Ом부즈먼 양성 배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후변화 등 환경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정리하는 Ом부즈먼을 상시로 배치하여 활용함
환경교실 지도사로 활용	방과후 교실이나 환경관련 특별활동 지도 교사로 활용함 (어린이, 청소년 환경의식 강화)
자연생태 조사원 및 해설사로 활용	해당 지자체의 자연 생태체험 활동을 지도하는 해설사로 활용함

위의 4가지 활용 방안을 기초로 하여 환경분야에서의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추진 체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9〉 환경 분야에서의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진체계

추진 체계	내용
도청 및 시·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양성 및 인턴제실시에 필요한 예산지원 조사결과에 대한관리, 데이터 수립 Ом부즈먼에 대한관리및예산 지원 (최소5년이상계약제)
대학교 또는 환경기술개발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기관중합관리 환경실무전문인력양성 (기업체취업연계) 기후변화및자연 생태조사전문인력양성 기후변화및자연 생태조사결과분석및데이터 방안연구 분석결과정기적보고 (도·시·군청 농업기술센터, 관련기업체 등)
여성인력개발전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인력개발기본방향설정 교육생모집 및 홍보역력 방과후교실, 자연상태해설사과정 등 부분운영
환경기술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취업연계 (인턴제활용)
일반기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데이터구매 또는 정보제공서비스신청
NGO 또는 여성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조사결과 등에 대한 왜곡 혹은 오남용에 대한 감시
농업기술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 조사결과에 따른 농업데이터 수립 등

■ 결론

본 글에서는 녹색성장을 위한 여성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서 환경기술 분야의 여성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녹색성장 관련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 의도적으로 여성의 참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여성이 전적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녹색 성장과 관련된 여성 일자리의 확지를 확보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우선적으로 환경 기술 분야의 여성 인력의 양성과 활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김종철 (2008). 여성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노동부 (2008.4).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노동부 (2008.7). 제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
- 보건복지가족부 (2008.6.13). 보도자료
- 신계숙 (2007). 기혼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여성정책에 대한 연구
- 여성부 (2008. 3.22). 여성분야 국정과제 실천계획
- 여성부 (2008. 7.1). 보도자료
- 정윤경외 (2007). 비전통적 여성진출분야유망직종 발굴 및 교육훈련 시스템구축, 여성가족부
- 여성크리넷 women.work.go.kr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홈페이지 (www.hrdkorea.or.kr)
-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 www.work.go.kr



(주)놀부NBG 김순진 대표

성공의 이유?

‘사랑’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이 아닐까요?



놀부보쌈은 브랜드가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생각될 정도로 많은 이들에게 깊이 각인돼 있다. 놀부보쌈뿐만 아니라 부대찌개, 향아리갈비 등 놀부의 이름을 건 다양한 브랜드를 가진 (주)놀부NBG가 고객에게 오랜 시간 사랑 받으며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우리 지역 여성 파워를 보여주는 (주)놀부NBG의 김순진 대표를 만나 그 대답을 들어보았다.

최고의 한식 브랜드 놀부보쌈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놀부보쌈을 아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안다”고 답할 것이다. 특히 지난해 9월 ‘데일리 프랜차이즈’ 브랜드 인지도 조사 결과, 한식브랜드의 경우는 놀부보쌈이 전체 43.8%로 1위, 놀부 부대찌개가 4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주)놀부NBG는 1987년 놀부보쌈을 시작으로 1989년 본격적인 체인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부대찌개, 향아리갈비, 설농탕, 유향오리 진흙구이, 흥부네 찜, 차니스 비스트로 치롱, 한식당수온 등 10개 남짓한 브랜드를 키워내 한 해 매출 6,500억 원, 국내외 가맹점 630개를 가진 국내 최고의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자리 잡았고, 최근에는 100% 친환경 쌀로 만수어진 참살이를 개발·출시하는 등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아직은 ‘놀부’ 하면 ‘보쌈’을 먼저 떠올리지만, 놀부 부대찌개도 5위권 안에 든 것을 보면 ‘놀부’는 CI 자체가 소비자들에게 조금씩 인지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나의 1번은 고객이다

그렇다면 (주)놀부NBG가 고객에게 꾸준히 사랑을 받고 커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김순진 대표는 그 이유의 첫 번째로 ‘고객중심경영과 고객제일주의’를 꼽았다.

“논산에서 단돈 200원을 주고 서울로 와 갖은 고생을 하다 드디어 신림동 작은 골목에 음식점을 냈어요. 싱싱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드는데도 구석진 골목까지 오는 사람이 없었죠. 길을 지나서 사람을 보며 ‘저 사람만 오오면 되는데, 저 사람만 오와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해지면서 나를 구해줄 사람은 고객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습니다.”

그때부터 고객의 소중함을 알게 된 김순진 대표는 20년째 흐른 지금도 고객을 자신의 '첫 번째'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항상 식품의 품질관리와 고객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고객의 건강을 위해 외식 문화기업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고객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신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내 가족이 먹는 음식처럼 최상의 품질의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영철학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전국 가맹점주, 과의 워크숍을 마련하는 눈앞의 이익보다는 품질 향상에 주력, 고객의 신뢰를 더욱 구축해주길 당부한다.

한식의 표준화와 대중화를 이룬다

김순진 대표가 1980년 NBG를 키울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한식의 표준화와 대중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외식업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던 1980년대 후반, 당시는 아직 프랜차이즈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 외식업이 아닌 요식업으로 불리고 제대로 된 계약서조차 없어 표준화 작업이 무엇보다 시급한 때였다.

"다양한 외식산업 중에서도 표준화 작업이 가장 어려운 게 한식 프랜차이즈였지요, 한식은 어머니의 손맛으로 만드어야 제맛이 나는 생각이 제일 적었고, 한정식의 경우 한 상차, 질 때까지 시간 길다는 점도 음식 사업으로서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특히 표준화된 맛과 서비스가 생명인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한식으로 성공하기는 매우 어렵게 보였죠."

하지만 그녀는 자신만의 특화된 노하우와 조직력으로 최초의 기업형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일궈냈다. 업계 최초 충북 음성에 마련된 중앙공급식주방 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지점에 다양한 식자재를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공급하며 전국 어느 지점을 가더라도 한결같은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1980년 NBG는 현대인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하고, 음식에 대한 신뢰도 구축을 위해 품질경영에 만전을 기해왔다. 2002년 ISO9001 인증을 위해 요소 중점관리기준에 의거한 식품안전성을 인증 받았고, 2002년부터 제조물책임법을 적극 도입, 국제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확보하였으며, 2005년부터 늘부 식품 위생감시단을 발족하며 전국 늘부가맹점의 바람직한 식품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아 22년에 걸쳐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공부하는 대표와 직원들

1980년 NBG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김순진 대표를 비롯한 전 직원 개개인의 자기 발전에 대한 노력도 한몫한다. 특히 김 대표는 '움의 끈을 놓지 않았다.

"어린 시절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상경해 나마흔에 뒤늦은 '움을 시작했어요.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이후 석사에 이어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지금도 직원들과 함께 늘 '우는 자세로 회사를 이끌고 있어요."

느즈막히 시작한 공부도 할 수 있다는 데 감사하는 마음'은 김 대표는 직원'의 '움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프랜차이즈 사업 초창기에는 전문 인력 부재도 '놓을 수 없는 어.'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때문에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끊임없는 투자와 노력을 기울'야 한다고 생각'고, 그 생각은 20년' 지난 지금도 변함' 없습니다."

이러한 김 대표의 생각은 지식경영으로 이어졌다. **직원 모두 자신의 업무에 전문성을 갖추도록, 자기개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오프라인 모임인 학습활동도 활성화 시키는 등 개인과 회사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저희가 선두에 설 수 있었던 데는 직원'의 역할' 가장 큼니다. 모두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기에 ' 자리까지 올 수 있었죠. 늘 직원'에게 고'게 생각하고 그'에게 보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순진 대표는 22년 동안 큰 성장을 이' 수 있었던 것은 고객과 직원' 덕분'이며 지금의 성공 요인을 그'에게 돌린다.

지나가는 사람 열의 아홉은 알고 있을 정도의 유명 프랜차이즈기업' 된 1980년 NBG는 창업초창기부터 꾸준히 이어온 사랑나눔기 행사, 늘부장학회사업 등 '나눔'과 '사랑'의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다. 결국 '사람'을 소중히 '기는 마음을 '바탕에 두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김순진 대표, 충남을 대표하는 '성 CEO 김 대표의 경영철학' 계속되는 한 1980년 NBG의 성장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





충남 다문화 속으로

인종, 나라, 문화를 다르지만 대한민국 그리고 충남이라는 공통분모로 동행해야 하는 다문화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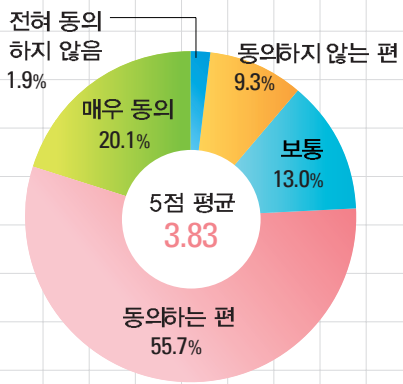
문화적, 민족적 정체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과 공존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을 담았다.



26_ 다문화 인식 관련 논단 28_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탐방 32_ 제3회 충청남도 다민족·다문화축제
36_ 다문화가정 방문교사 수기 38_ 다문화 관련 세미나 42_ 다문화 관련 새소식

충남도민의 다문화 의식 조사

본원은 충남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09년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충남도민의 다문화 의식을 조사하고 분석결과 및 정책적 함의를 현대민족학연구소의 공동학술회의(10.13)에서 발표하였다.
 < N=1,000, 전체 응답자이며, 5점 평균 점수가 높을 수록 '동의한다'는 의미임.>



<그림 1> 부모의 인종과 민족과 관계없이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 국적 부여에 대한 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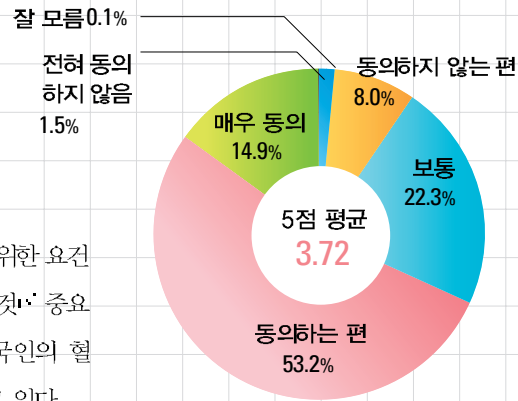
동의 75.8% 비동의 11.2%

이번 조사는 '성결혼'민자 등 '민자의 한국사회 적응 중심의 다문화정책'으로부터 한국인을 포함하는 쌍방향의 통합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사결과 충남도민의 다문화 의식은 개방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국적부여의 기준 설문에서 현 혈통에 기반한 속인주의적 원칙으로부터 출생지에 기초한 속자주의적 기준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부모의 인종이나 민족과 관계없이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5.8%가 동의, 5점 평균점수로는 3.83점을 나타내었다. 이는 2007년 한국 '성정책연구원의 동일 질문에 대한 응답 평균 3.49점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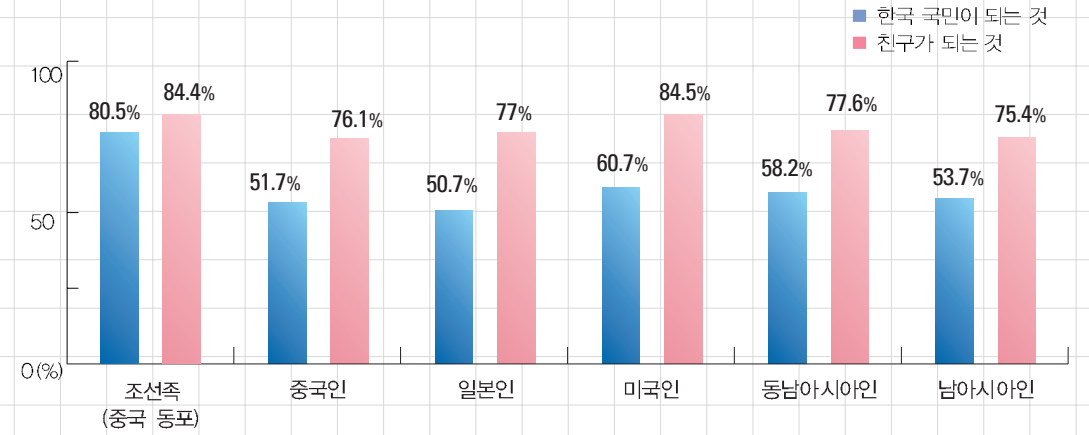
동의 68.1% 비동의 9.5%

또한 한국인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부모가 한국인인 것보다 한국의 법, 제도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질문에 68.1%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인의 혈통·문화적 정체성 못지않게 정치·법적 정체성을 중시하고 있다.



<그림 2> 한국인 인정 요건으로 혈통보다 법/제도 존중이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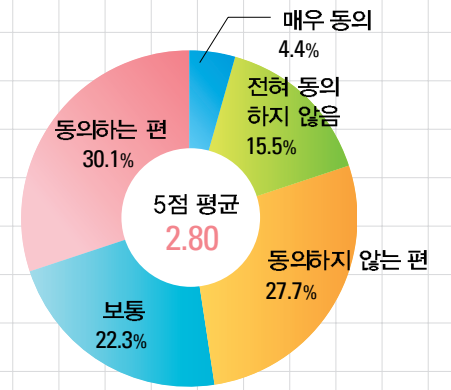
한편, 외국인과의 사회적 거리감 항목에서는 한국국민이 되는 것에 대한 선호는 조선족, 친구로 지내는 것에 대한 선호는 미국인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3>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동의 34.5% 비동의 43.2%

그리고 '중국적 허용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장기간 거주한 결혼·주민에게 출신 국적을 유지한 채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43.2%)이 동의한다는 응답(34.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4> 장기거주 이주민에게 이중국적 허용

충남도민의 다문화의식 조사결과에 기초해 볼 때, 도민의 다문화의식은 '성결혼'민자 등 '민자'에 대한 '비'적 차별보다는 관용에 기초한 수용성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인의 정체성 규정에 대해서도 혈연중심적 사고로부터 시민적 기준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민자'의 적극적 통합과 공존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기에 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충남도민의 다문화의식을 좀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민자'과의 문화적 접촉과 교류를 확대하고 각종 다문화 정책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충남도의 든든한 지원이 뒷받침

아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유양순 계장은 “우리가 센터의 기관보다 우수한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충남도의 관심과 남다른 지원 덕분에”라고 말했다. 여성정책관실에서 추진되고 있는 행복가꾸기사업 예산이나 단위 정책연구소 추진 등의 지원을 보더라도 충남의 다문화사업에 우위에 있다는 것이 그녀의 지론이다. 특히 행복가꾸기사업은 다문화가족에게 정서적 교육과 개별화된 전문적 교육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사업이기 때문에 충남도의 관심과 힘이 되는 것도 사실일 터. 또한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의 우수한 연구인력의 정책적 지침이나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지원받기도 하면서 평가와 환류를 통한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어 있다고 한다.

♥♥ 시대흐름에 맞는 다문화정책사업 계속되길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한 다문화사회화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는 아시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의 생각이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생애주기형 다문화 정책 모형이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밝히며, 전 직원 힘을



을 합히며 지향적인 정책과 사업을 구상하고 생애주기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양순 계장은 문화에 우위는 절대로 없으며, 모든 교육사업은 쌍방향으로 지향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힌다.

“공존과 상생의 정책만이 우리가 하나 되는 길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감되어질 수 있고 수요 조사를 통해서 가장 우선시되는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또한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사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다문화 부부 아카데미 \ 다문화 사회 이해교육_ 정보화프로그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체험수기 |

한국 전통 문화 체험



▲ 아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최향과 유양순 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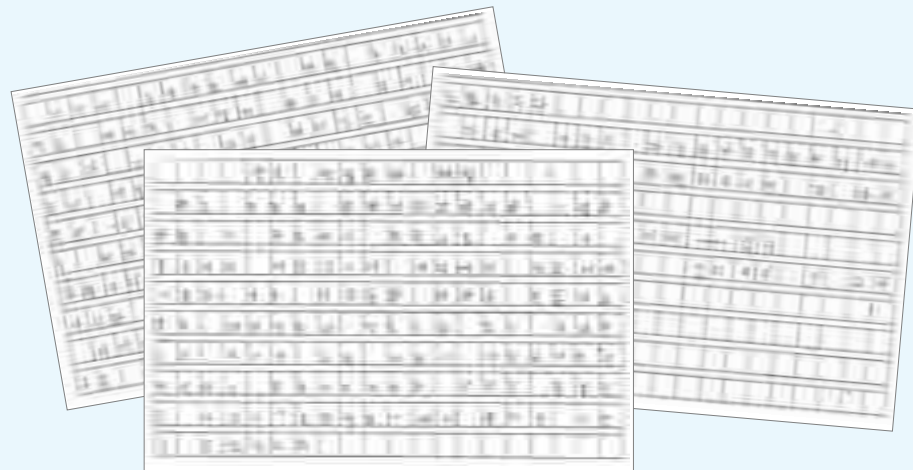
저는 중국인 귀향이라고 합니다. 1년 8개월 전 중국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결혼이주 여성입니다. 아직까지 한국어가 서툰데 한국 사람들과 대화할 수 없어서, 특히 대한민국의 전통 문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결혼이민여성단체로 충청남도 아산시 '온양향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에 온양향교에서 옛날 한국 나라의 전통 제사 음식을 어떻게 하는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것은 한국의 옛날 전통 놀이 중 우리가 몸소 겪은 일입니다. 굴렁쇠 굴리기와 투호 놀이 중 제가 몸소 체험해보니 정말 재미있습니다. 운동하는 것은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몸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번에 향교에서 한국의 전통 놀이 배우는 손으로 만들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다음에 아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또 이런 기회 있으면 꼭 다시 가보고 싶습니다.

온양향교를 다녀와서
2009. 9. 24 귀향



· 최향이 한글로 직접 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체험수기

제 3 회 충청남도 다민족·다문화 축제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충청남도 다민족·다문화 축제가 5월 17일에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장 내 이벤트장에서 개최되었다. 충청남도가 후원하고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서 주관한 이번 축제는 사업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하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도내 각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축제의 주제와 진행방식을 결정하는 등 다문화가정 축제의 중심에 서고 많은 다문화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먼저 꽃박람회장은 장소의 특수성과 여러 문화의 어우러짐을 고. 이번 축제의 주제를 “꽃, 사람, 그리고 어울림”으로 결정하였으며, “빠지지 않은 꽃” 없고, 어우러져 더 아름다운 꽃처럼 여러 가지 문화가 어울. 더 아름답고 창조적인 충남의 문화를 만.어간다는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축제 컨셉에 맞추어 꽃을 주제로 한 공연과 노.경연을 준비하였는데, 각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여러 국가 출신 여성의 결핵.민자. 각 나]의 민속춤과 다문화 합창 공연 등을 준비하였으며, 다문화가정 가족구성원. 함께 참가하는 (꽃)노.경연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공연순서 |

구분	지역	공연	공연명	출연자·출신국가
축하공연	태.산	합창	앞으로 / 홀로아리랑	베트남, 필리핀, 태국, 몽골, 중국 등 35명
축하공연	에.산	춤	필리핀전통춤	크리스티나(필리핀) 외 9인, 총 10명
경연 1	서.천	한국가요	서주경 외 '쓰러집니다'	영리홍어이(베트남)
경연 2	아.산	한국가요	장윤정 외 '사랑아'	신.자, 당.소연 모녀(중국)
축하공연	청.양	성인 가곡합창	고향.기.봄	김나탈리아(우즈베키스탄) 외 19명 총 20명 (베트남, 필리핀 브라질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경연 3	논.산	필리핀 가요	타갈로그어 'bulaklak(꽃)'	로다(필리핀) 외 그 자녀 이우찬, 이우정, 남매
경연 4	아.산	한국가요	김수희 외 '남행인차'	몽골.개.개.슈.랭 외 백댄서 3인
축하공연	연.기	꽃춤	봄으로 가는 소리	누엔티김.깡 6명, 총 7인 (베트남, 필리핀, 중국, 몽골)

구분	지역	공연	공연명	출연자·출신국가
경연 5	아산	한국가요	장윤정 씨 '어머나'	전투튀엔(베트남)
경연 6	예산	베트남 노래	베트남어 '베트남 씨 사랑'	느구엔티빈(베트남), 모티(친정엄마), 조진국(남편)
경연 7	당진	한국가요	장미꽃 한송이	장가경(중국)가족 7인 남편이 주로 노래, 가족은 백댄스
경연 8	홍성	한국가요	박주희 씨 '지기'	키요티투하, 누에끼우썬, 쩐티베타오, 후인티중, 응엔티곡헌 등 베트남 5인조
축하공연	논산	전통무용	페루 꽃춤	프로르(페루), 오중익 씨 자녀 오병갑(12), 오은지(7) 남매
경연 9	예산	필리핀 민요	타갈로그어 '나비'	아나벨, 안나벨라, 시스, 미셸, 버질린, 라이스 등 총 6인 필리핀 여성
경연 10	아산	한국가요	송대관 씨 '당신은 내여자'	노진(태국), 안나벨(필리핀) 동서 가족
축하공연	금산	퍼포먼스	작은세상 / 앞으로 앞으로	박충녕(12세) 씨 27, 총 28명
축하공연	아산	합창	들장미	다문합창단 30명



이날 완구 충남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1도 1제 다문화사회에 진입한 만큼 다문화가정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존중하고 포용해야 하고, 다양성과 관용을 기리려 한 다문화사회 1나무가 튼실하게 자 1더 1어 사는 숲 1우거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하면서, 오늘 축제가 다문화가정과 더 1어 사는 밝고 희망찬 충남을 만드는 1거 1 1되길 기대한다고 말 1다.

올해의 다문화축제는 지역 및 가족단위로 1주민과 그 가족구성원 1 1 직접 준비하고 참여함으로써 한국인과 1주민 가족 구성원 1 1 함께 만 1어 1인 "우리 1의" 축제로서, 다문화가정 구성원 1 1 서로의 문화를 더 잘 1해하고 지역의 사회적 지지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됨으로써 기존의 축제가 가진 소극적 관람식 축제의 한계를 극복하였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프로그램 진행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 1성의 유기적 관계가 잘 드러나 최근 몇 년간 집중적으로 지원된 사업인 도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지원사업과 활동 1 1에도 올 1서 지원기관 1 1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지지 세력으로 역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1

모두가 어우러져 행복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박영순 아동양육지도사 <부여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샌니~ 임~”

방문하겠다고 미리 전화를 드렸더니 아이들이 마중을 나와 기다리고 있다가는 서로가 가방을 들겠다고 난리이다.

한 명은 핸드백을 한 명은 책가방을 들고 양쪽에서 나의 손을 나누어 잡고 빨리 가자고 재근이다.

‘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다문화 가정의 방문교사를 하게 된 지 2년인데 ‘일’을 정말 잘 ‘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유’가 ‘렇게’ 아‘...’ 환대해 주고 ‘민자’ 언니처럼 어머니처럼 믿고 의지하고 따 ‘주’기 때문이다.

‘답’에 꼭 성공해서 사회봉사하며 살아야지

그때는 그저 돈 많‘ 벌’어서 출세한 뒤에 우아하게 ‘풀’어 보고 싶은 사치품으로 생각 ‘었는데, 인생은 내 뜻‘ 아니 ‘서 부를 누리거나 큰 명‘을 얻는 대신 사랑하는 사람‘과 단란하게 사는 행운을 주시고 몸과 마음으로 하는 사회봉사를 마련해 주신 것 같다. 그‘과 접하다 보니 그‘에게 가장 힘든 것과 필요한 것‘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것‘을 해결해주는 것‘ 낯선 땅에서의 그‘의 삶을 풍요롭거나 넘치지는 않더 ‘도 외롭지 않은 삶, 함께하는 삶을 마련해 주. ‘고 ‘이다.



그‘가 가장 힘든 것은 누구나 알듯‘ 첫째로 의사소통의 문제‘다. ‘것’은 본인의 노력과 가족의 협조만 있으면 센터나 방문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도 교사‘...’ 꼬‘...’라고 생각하는 어르신‘...’ 많으신 것 같다. ‘를 위한 해결책은, 다문화 가족의 시부모님과 남편에게는 결혼함과 동시에 다문화 교육, 가족으로 함께 사는 방법에 대한 소정의 교육‘...’ 이루어 ‘으면 한다.

두 번째는 자녀 문제인데, 나 ‘에서 출산 지원, 양육지원, 보육시설지원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하는데, 평등하게 ‘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깝다. 관공서에 아는 사람도 없고 정보에 눈‘ 어두운 가정은 어. ‘움에도 ‘구하고 해 ‘을 받지 못하는 경향‘ 있다. 따 ‘서 정부에서 ‘민자’ 결혼을 할 때 알. ‘주든가 아님 해당 면사무소에서 공평하게 처리해서 억울하게 누락되는 사례가 없었으면 한다. 정말 어. ‘운 집‘고 시부모와 남편‘ 좀 밝지 못한 가정‘ 아‘가 25개월‘ 넘도록 해 ‘을 전혀 받지못해 면사무소를 몇 차례 걸쳐서 해결해 준 경험‘ 있다.



세 번째는 재산‘ 많아서 양육‘나 자녀교육 등 경비를 지원받지 않아도 되는 가정에는 기준점을 두어서 차등 있게 지원 하든가 아님 한국인의 가정과 대등한 지원을 ‘으면 하는 바람‘다. 죽어 ‘ 노력해도 정말 못사는 한국인‘도 많은데 외국인 과 결혼 ‘다는 ‘유 하나로 넘치게 받기만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것‘ 습관‘ 되면 으 ‘받으. ‘고만 하고 게으름을 답습하게 되고, 한국의 저소득 가정 ‘.에겐 형평성의 원칙‘나 정부에 대한 ‘신‘ 생기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그‘가 한국에서 잘 적응하‘ 살아가고 튼튼한 ‘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생활 문화교육, 자녀교육 등은 더욱 확대하‘ 센터 및 전문 방문교사‘.을 더욱 양성하‘ 함께 어우러져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나 ‘가 되었으면 한다. ♡



Seminar
01

개원10주년기념 세미나

여성결혼이민자 가정폭력 현황과 지원방안

본원에서는 올해 개원1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세미나의 하나로 「여성결혼이민자 가정폭력
현황과 지원방안」을 6월 3일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가정폭력 피해실태외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가족갈등 예방 및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에
대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세미나에서는 도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등 유관기관 종사자
와 여성결혼이민자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
는 민간단체 전문가 등 약 100명 참석하
였다. 약 4시간에 걸쳐 총 4개의 발표와 각 발
표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제1세션에서는
강기정 백석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한국과 충
남의 여성결혼이민자 가정폭력 실태에 대한
현황연구와 사례발표가 있었으며, 제2세션에
서는 김영주 본원 여성정책팀장의 사회로 여
성결혼이민자 가정폭력 지원정책 및 지원체계
와 인권상담 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제1발표인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
위원의 「여성결혼이민자 가정폭력 피해 현황
및 대책방안」에서는 다문화가정의 부부폭력
발생률이 한국인가정 부부폭력 발생률보다 높

다는 여성부 연구결과를 언급하면서, 가정폭
력 피해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지원으로서
주여성긴급지원센터 운영 지원 확대, 미등
록 여성 지원 서비스 보완, 생계비 지원 확대,
체류자격 연장 현실화, 결혼중개업체의 지속
적 관리 등을 제안하였다.

제2발표인 경순 천안모세 센터장의 충
남 여성결혼이민자 가정폭력 피해사례 및 지
원에서는 가족구성원으로부터 폭력피해를
입은 사례와 이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방법
을 소개하면서,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폭력
다양한 형식과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을 보여주었다.

제3세션의 발표에 대해 신혜중 교수(순천
향대 사회복지학과)와 권미주 상담실장(한국
주여성인권센터)은 다문화가정 가정폭력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





성과 효율적인 민관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상담 서비스의 전문성 확보와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제2세션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정폭력 지원 정책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는데, 먼저 제1발표자로 여성선 여성부 권익기획과장인 '여성결혼이민자 가정폭력 피해 지원 정책 및 지원체계를 발표하였고 이어 제2발표자로 '임숙일 인권희망센터 강강술사 대표가 '주성 인권상담 사례를 발표하였다. 여성선 과장은 '성부의 여성결혼이민자 가정폭력 피해 지원 정책을 추진하게 된 필요성과 '경, 현재 주요 정책 및 서비스를 소개하였고, '임숙일 대표는 현장에서 많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상담과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부부, 가족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사례를 발표하였다.

발표에 대해 '우복남 본원 연구위원과 최현숙 '예산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의 토론이 있었는데, 각각 연구자와 현장의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복남 연구위원은 '여성결혼이민자 가정폭력 발생과 대응에 대한 강도 높은 지원의 필요성과 현재의 정책적인 한계를 지적하였으며, 최현숙 센터장은 현장에서 가정폭력 케'스의 다양함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제도적, 현실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을 제시하였다.



Seminar 02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과 통합정책의 새로운 모색 학술회의 개최

10월 13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한국인의 다문화인식과 통합정책의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본원과 현대민족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조정남 고 '대 명예교수(현대민족학회 회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1부에서는 '충남도민의 다문화 인식' (조화성, 본원 연구위원), '이민자가 바'보는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 (양준영, 충남 '주'성) 등 다문화인식의 문제를 다루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영국과 프랑스의 참정권 비교 연구' (김용찬, 대구가톨릭대 교수), '독일의 '주민 참정권 연구' (김경미, 서강대 교수) 등 유럽 다민족 국가'의 '주민 참정권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에의 시사점을 찾았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충남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09년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도민의 다문화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논의되었는데, 충남도민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은 개방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 적극적 수용단계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관용의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본원 홈페이지 보도자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Seminar 03

다문화 콜로키움 개최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10월 30일과 11월 6일, 도내 '주민 주요 출신 국가 및 한국의 사회·문화를 비교하고, 그것' 충남 지역 '주민관련 사업과 정책에서 가지는 함의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다문화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트남(김종욱, 청운대 교수), '국(윤경원, 한국외대 교수), 필리핀(박광섭, 호서대 교수), 몽골(김기선, 단국대 교수) 등 4개국 전문가'를 초청하여 각 국가와 한국의 사회문화적 차'를 듣고 '를 토대로 '주민정책, 특히 '성'주민정책 수립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

NEWS 1

다문화정책위원회 창립 / 및 / 활동

올해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현황조사결과」에 따르면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은 총 45,920 명으로 도내 인구대비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숫자는 16개 광역 지자체 중에서 서울, 경기, 경남, 인천에 이어 5번째로 많은 것이다. 현재 충남에는 외국인근로자, 결혼 이주민, 유학생 등 많은 이주민이 생활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주민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남이 이주민들에게 살기 편한 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주민들의 현실에 적합한 지원과 이주민과 공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이러한 정책 추진을 함에 있어 이주민 당사자들과 민간 영역의 관련 종사자,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충남도에서는 올해 4월 기존의 '충청남도거주외국인지원조례'를 충청남도 다문화가정 지원조례로 전면개정하고, 여기에 다문화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여 5월 25일 '충청남도다문화정책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위원회 운영을 시작하였다.

충청남도다문화정책위원회는 학계, 다문화정책 추진 유관기관, 언론계 등 각계 민간 전문가와 이주민(성결혼 이주민)을 포함하여 총 3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기능과 역할은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과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종합 조정하는 것이다.

현재 충청남도다문화정책위원회는 기획분과, 결혼 이주민분과, 다문화가족자녀분과, 외국인근로자분과의 총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다양한 이주민의 욕구와 실정에 맞는 정책 조정과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충청남도다문화정책위원회는 5월 창립총회 이후 8월에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 9월과 11월에도 개최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 출범한 충청남도다문화정책위원회가 앞으로 충남의 이주민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하고, 이주민을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NEWS 2

충남다문화종합포털사이트 구/축/소/식



본원에서는 도내 다문화가정 등 이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고 활용할 수 있도록 '충남다문화종합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12월에 개통한다. 이제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습득과 활용이 일상화되고 보편화되었지만,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민은 여전히 언어적 제약으로 인하여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과 활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원에서는 '충남다문화종합포털사이트' 구축을 통하여 충남도내 많은 이주민이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모국어로 제공되는 일상생활 정보를 쉽게 접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어 외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한국어의 총 7개 언어로 제작되는 이 사이트는 교육정보, 지역생활정보, 유관기관 정보 등 다양한 정보와 함께 나열·언어별 커뮤니티, 상담실 등의 기능을 제공하여 이주민이 마음 편하게 다다르고 소통할 수 있는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꾸밀 예정이다.



아동, 가족과 사회환경^o

빈곤 이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아동 성폭력 상담센터, 학대 이동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하여 아동의 성장에 가족의 중요성, 가족의 역할을 살펴본다. 또한 아동과 가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 중 직접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는 아동보호서비스 현황을 파악한다. 이를 통하여 다양한 문제들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해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



46_ 지역사회 아동 성폭력의 현황과 예방 50_ 지역 전문가인 '부 52_ 지역 전문센 '인 '부
56_ 「2009 충남 지역아동센 '의 평가사업」 마치면서



지역사회 아동 성폭력 현황과 예방

인구가 늘어나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사회적 문제와 범죄 역시 다양해지고 더욱 참혹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중 하나가 성(性)과 관련된 범죄이고, 더욱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는 아직 성에 대한 개념조차 확립하지 못한 어린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일 것이다.

김태호 소장 <충청해바라기 아동센터>



얼마 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조두순 사건'은 아동을 잔혹하게 성폭행하고 방치해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입힌 아동 성폭력 사건이었다. 사건 자체에 대한 잔혹성에도 경악을 금치 못하였지만 또 한번 우리를 놀라게 만든 것은 바로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기준의 문제였다. 그동안 아동 성폭력 범죄에 있어 가해자의 죄가 입증되어도 음주상 또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또는 나이가 많거나 어리다는 것,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서 제출 여부 등을 고, '하' 감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술에 취해 성추동을 억제하지 못해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너그럽게 다루는 식의 미온적인 대책으로 인해 '숨방망이 처벌'이란 말이 생겨날 정도로 처벌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었다.



2008년 해진·여슬 양 사건을 계기로 그나마 성폭력특별법 개정되어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조정하였고, '조두순 사건'이 공개되면서 전 국민의 관심으로 또 한번 아동 성폭력을 위한 법 개정 움직임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양형기준에 대한 법조계의 움직임과 전자발찌 착용기간 연장을 포함한 다양한 정부 차원의 아동 성폭력 예방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를 위한 노력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한 움직임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2008년 자료에 의하면, 13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 피해자는 2003년 642명, 2004년 721명, 2005년 738명, 2006년 980명, 2007년 1,081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청남·북도 지역의 통계자료를 보면 충북지역은 작년 성폭력 발생 건수가 162건이나 되었고, 충남지역은 2007년에 127건이었던 아동 성폭력 2008년 391건으로 3배나 증가하였다. 상황은 그렇다보니, 법 개정이나 사회 안전망의 제도화와 같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대책은 더욱 시급한 문제가 되었고, 아동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증가와 예방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아동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아동 성폭력이란 '아동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으로 넓게 보면 법률상 미성년자인 20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강간, 추행 등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고, 좁게 보면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적인 행위 일 할 수 있다. 즉,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아동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아동에

게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하거나 음란물에 노출되는 것에서부터 아동의 신체를 만지거나 혹은 아동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하고 강간에 이르는 등 성적 접촉이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아동은 자기 보호 능력과 성적 자기 결정능력 부족하기 때문에 피해의 심각성이나 후유증 성인과 다를 수 있고 발달단계에 있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 후 적절한 치료적 개입은 아동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아동 성폭력은 처음 보는 낯선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친족이나 동네사람 등과 같이 아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해자는 아동과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혹은 자신을 신고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뇌물이나 보상을 하기도 하고 위협적인 말로 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해 알리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아동 스스로가 성폭력 피해를 자신의 잘못으로 인식하거나 자신의 고통이나 괴로움을 이야기 할 지지체계의 부족으로 인해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적 장애우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아동과는 다른 양상으로 대하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 사실에 접근하고 해석하는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적 장애우에 대한 인식 부족하 경찰 조사절차 혹은 재판 과정에서도 잘못된 접근을 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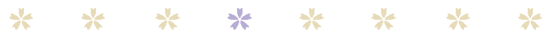
아동기에 성폭력에 노출되는 것은 여러 가지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무리한 성적 접촉으로 인한 신체적 손상이나 성병 감염, 심하게는 임신과 낙



를 겪을 수도 있고 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회피를 가질 수 있으며 연령에 맞지 않는 과도한 성적 호기심 등이 있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아동의 공포와 불안 경험을 보고 분노, 우울감, 악몽 등 심리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문제는 장기적으로 사회활동이나 대인관계 상황에서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고 청소년기 비행행동이나 알코올과 같은 약물사용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물론 모든 성폭력 피해자가 이와 같은 후유증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견상 드러나지 않더라도 피해 당사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게 된다. 또한 아동 성폭력을 대함에 있어 어린 나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다시 거론하지 않고 덮어두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혹은 피해 내용에 대해 지루 물어보는 것이 상처가 되기 때문에 묻지 않을 것이나 물어볼 때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동이 피해내용을 말하지 못하고 숨기게 되면 자신의 잘못으로 알고 잘못된 죄책감을 가질 수 있으므로 당당하게 이야기하여 심리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어야 한다. 만약 아동에게 추궁하듯 캐묻거나 단정적인 질문, 유도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 아동의 진술이 혼란되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꼭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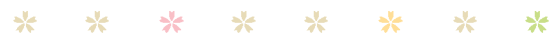
아동의 성폭력을 접하는 일은 피해 당사자인 아동에게도 행한 일이지만 이를 처음 접하는 어른에게도 당황스럽고 행한 일일 것이다. 아동 성폭력을 처음 접하는 사람 누구든지 간에 침착하고 흥분하지 않으며 안정된 모습으로 아동의 말을 침울성 있게 들어주고 믿어주며 절대 아동을 비난하거나 탓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성폭력은 피해자 잘못이 아니고,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안심시키며 아동의 경우 자신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의 행동으로 자신에게 큰일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불안 등이 야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아동에게 피해 사실의 심각성을 강조하거나 부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동 성폭력의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친척, 부모 등인 경우 오히려 어른들이 사건을 쉬쉬하고 은폐하려 한다면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재발을 방지해야 하고 만약 가해자의 사죄, 각서, 방성 등을 이유로 사건을 덮어, 경우 성폭력 범죄가 재발되거나 상습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는 아동에게 돌릴 수 없는 장기적인 정신적 상처가 됨은 물론, 가해자 역시 스스로의 의지로 극복할 수 없는 병적인 아동대상 성범죄자가 되어 삶과 영혼이 파괴될 수 있다. 아동 성폭력에 대한 신고 의무가 성폭력 피해 아동과 가해자, 나아가 사회적 안전을 위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아동 성폭력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발생할지 모르고 누구나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아동 성폭력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미리 준비하고 적절하게 대비한다면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 만일 아동 성폭력 발생한다면,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고 피해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항상 우리 아이들과 주변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전문적 개입을 통해 아동 성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아동 성폭력 발생 시 대응 절차



1. 성폭력 피해가 의심되면 임의대로 피해를 단정 짓거나 사건을 해결하지 말고, 전국 해바라기 아동센터, 여성 긴급전화 1366, ONE-STOP 지원센터 혹은 성폭력 상담소에 연락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도록 한다.
2. 성폭력 피해를 알게 된 경우 경찰(112)이나 ONE-STOP 지원센터에 신고한다.
3. 성폭력이 의심되는 근거들을 보존하기 위하여 증거물품 (가해자 제모, 지액 등)을 보관하고 현장을 훼손하지 않는다.
4. 사건 수사, 민사 소송 등 법적 문제 자녀 치료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성폭력 상담소 등 전문기관과 긴밀히 협력한다.

www.1375.or.kr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세상속에서
늘 해바라기처럼 해맑게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 전화 043-857-1375~77 | 팩스 043-857-1380
| 이메일 csc1375@1375.or.kr
| 운영시간 오전 9시~오후 6시(월~금) / 응급 24시간 접수



백석대학교 기독교복지학전공 변미희 교수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미래를 위하여

최근 파렴치한 아동 성폭력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잇달아 공개되면서 아동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지에서는 아이들을 보호할 대책과 제대로 된 시스템은 무엇인지, 그리고 일명 나영이 사건이 낳긴 점과 어른들이 해야 할 일들을 모색해 봤다.



Q . 최근 사회 문제가 된 나영이 사건으로 인해 아동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공론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1998년 4월 27일 SBS TV <추적 사건과 사람>에서 '아동학대 아물지 않는 영혼의 상처' 주제의 방영에서 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은 '슬'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영혼 '이' 사건이 방송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를 계기로 1999년 아동복지법 전문 개정 시에 아동학대와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나영이 사건과 같은 아동 성폭행이 우리 사회에서 '미'오 '전'부터 심각한 사회문제였음에도 그동안 사회적 관심을 끌지 못해서 대책 마련이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폭행의 피해로 말미암아 평생 장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참혹한 나영이 사건이 발생하면서 일반인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사회적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Q . 그렇다면, 현재 국내 어린이 성폭력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2008년 범죄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만 15세 이하 어린이 1,958명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보고되며, 특히 최근 5년간 성폭행 피해아동 7,717명 중 절반 넘는 3,759명(52.0%)이 초등학생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유형 중에서 성적 학대 피해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자아발달 면에서 가장 큰 고통을 그리고 가장 오래 겪고 있습니다. 특히 1991년에 발생한 김부남 사건을 보면 성폭행의 피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오래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Q . 하루가 멀다 하고 늘어나는 성범죄 추이나 아동 성폭력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일부 법 개정을 넘어 보다 체계적인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나영이 사건과 은지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아동 성폭행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유기정역 상한, 성범죄자 신상공개 강화, 팔찌제도, 공소시효 연장을 포함하는 성범죄통합법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아성자의 경우 재범률이 다른 성범죄에 대해 높기 때문에 '회'학적 거세'도 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우기 위해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2008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아동학대 발생장소를 보면 가정 내가 83%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차원에서는 예비부모교육과 아동의 발달단계별로 즉,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아교육기관과 학교에서는 아동학대상황 발생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학대예방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사회적 차원에서는 아동학대의 문제를 한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 예방캠페인 등을 활발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Q . 미래의 꿈나무인 아이들을 위해 가정과 사회에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아동을 존중하게 하는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하' 하나를 키우면 온 동네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도 아동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할 역량 있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 선진국이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계에서 아동이 가장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필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복지학 박사
백석대학교 기독교복지학전공 교수, 한국가족복지학회 학술위원장
한국입양홍보회 지문위원,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지문위원

우리는 **소망**한다, 세상 모든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



굿네이버스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 권익을 위한 사명감에 불타는 굿네이버스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 이들을 찾는 날은 아이들을 위한 시설 리모델링 공사로 전 직원이 분주했다. 바람이 차갑게 부는 추운 날씨에 무거운 짐을 들고 4층 건물을 오르 내리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이들의 바쁜 시간을 잠시 빌려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1. 충청남도 아동학대에방 및 사례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간담회 2. 세계빈곤퇴치의 날을 기념한 계광중학교 캠페인
3. 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도솔프로젝트 수감시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수여받은 감사패

Q . '좋은이웃'이라는 뜻의 굿네이버스(good neighbors)가 어떤 기관인지 궁금합니다. 이곳의 역할과 목적에 대해 알려주세요

굿네이버스는 가난하고 소외된 지구촌 이웃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전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코자 1991년 3월 한국인에 의해 설립된 국제구호개발NGO입니다.

아동권리보호, 네트워크, 사회교육을 목표로 국내에서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14개 그룹홈, 13개 지역아동센터, 9개 사회개발교육센터, 3개 종합사회복지관, 3개 어린이집, 1개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센터에서 전문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방글라데시, 케냐, 에티오피아, 르완다, 네팔 등 20개국과 북한에서 구호개발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충남아동전문기관은 2000년도에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복지법 제 25조)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아동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전문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 굿네이버스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 행위자 상담과 교육,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4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 모든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동상담전용전화 1577-1391을 24시간 핫라인으로 운영하여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받고 있으며, 현장조사 실시를 통해 치료, 격리보호, 관찰 등 추후 관리를 시행합니다.

또한 아동과 부모 및 관계자를 상담하는 것은 물론 필요 시 MRI검사, 심리검사, 심리치료, 병원치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각종 캠페인과 세미나 실시, 자원봉사자 교육 및 관리, 기타 경제적 지원, 가정봉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4. 중학교 방학학교 응급구조사 아동학대에방교육
- 5. 기관 내 아동미술치료실 6. 자원상담원 사례발표회 7. 기관 내 아동 응급처치실
- 8. 굿네이버스 대학생 자원봉사동아리 "두드림" 발대식



Q . 굿네이버스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많은 일이 있으셨을텐데요, 일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으시거나 혹은 가장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언제입니까?

먼저 아동권리를 침해당해서 고통을 당한 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서 가정 회복될 때입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가정을 보호하고 학대가 재발하지 않았구나 싶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굿네이버스에 동참하는 후원자들의 후원금이 국내뿐 아니라 북한, 해외 아동에게 전달되어 기본적 의식주를 해결하며 학교교육을 받아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도록 하는 현장의 소식들을 접할 때 사회복지사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아울러 국내외 굿네이버스 후원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Q .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고쳐야 할 점과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방법, 개선방향 등을 말씀해주세요.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아동의 인권, 권리를 존중해줘야 한다는 어른들의 의식이 확립되는 것입니다. 의식변화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동학대가 발생한 후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도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기 전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부모는 물론, 앞으로 부모가 될 젊은이나 신혼부부에게 아동의 권리, 자녀양육, 부모가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법 등을 교육해야 합니다. 부모교육을 강제로 할 수는 없겠지만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정에 세금감면이나 주·구입시 우선권을 주는 등 교육 참여를 권장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9 충남 지역아동센터의 평가사업」을 마치면서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충남지역의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거의 마치게 되었다. 평가결과보고서를 완성한 시점에서, 충남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지역아동센터의 중요한 의미와 역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더불어 2009년 처음으로 시작된 지역아동센터 평가사업의 목적 및 추진방향과 평가결과로부터 도출된 아동복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또한 충남지역에서 소신을 가지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시설장의 운영철학을 소개한다.

송미영 박사 <본원 사회복지팀 연구위원>

Chungnam
Community
Center } Child



지역아동센터 '를 이용하지 않거나 관련되지 않는 사람들은 '지역아동센터' 라는 이름이 다소 생소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빈곤지역 아동들이 이용하는 '공부방'이라는 이름은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본 것 같고, 지역아동센터 '보다 훨씬 친숙하게 인식하게 된다. 짐작하듯이 '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로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방과 후 공부방이 어떻게 2000년에 들어 지역아동센터'로 변모하게 되었는지 역사를 개략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지역아동센터 '는 1980년대 빈곤지역 아동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 '공부방'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공부방은 소외 계층의 밀집지역인 빈민지역에서 빈민주민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과 문화사업을 실시하였다. 지역주민과 아동들이 처한 현실과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여 빈민운동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었다¹⁾. 1990년에는 대도시 외곽 빈민지역을 중심으로 공부방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또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방치된 아동을 돌보기 위하여 생겨나기 시작하였다²⁾.



IMF 이후에는 결식아동¹⁾ 급증하면서 공부방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민간²⁾ 중심³⁾ 되어 빈곤 지역 아동 등의 교육뿐 아니라, 가정의 문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과 함께 아동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이태수, 2005).

한편, 빈곤아동의 문제가 가정에서만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방과 후 보육서비스, 공부방 등과 같은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⁴⁾ 문제해결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 기관⁵⁾은 아동에 국한하⁶⁾ 보호와 학습지도, 정서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므로, 빈곤가정⁷⁾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를 풀 수가 없었다⁸⁾. 이에 정부는 빈곤아동 가정의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2004년 1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였다. 빈곤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⁹⁾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¹⁰⁾이다(아동복지법 제16조 1항 11호).

이처럼 지역아동센터는 사회적 돌봄¹¹⁾ 필요한 지역 내 빈곤아동에게 보호와 교육, 다양한 문화활동 및 체험활동을 통한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지향한다. 2009년 지역아동센터 운영 매뉴얼의 주요기능을 살펴본다¹²⁾.

첫째, 아동의 심리 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 기능을 강화한다. 둘째,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를 한다. 셋째, 아동의 학습능력 재고, 학교 부적응을 해소한다. 넷째, 일상생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을 강화한다. 다섯째, 빈곤, 위기가정 아동에게 가족기능 보완 및 지원한다. 여섯째, 지역사회 자원 확보, 발굴 및 지지망을 강화한다. 일곱째, 지역사회 내 아동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연계 등을 주요 기능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아동¹³⁾ 위기에 노출되어 있거나, 방임된 상¹⁴⁾에서 가장 접근¹⁵⁾ 용¹⁶⁾한 시설로 보다 전문적¹⁷⁾고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¹⁸⁾ 특징¹⁹⁾이다. 또한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및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완적 기능뿐만 아니라 |아동을 |.리싼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지지적 서비스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²⁰⁾.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는 2005년 급증하²¹⁾ 2009년 6월말 기준으로 3,230개소로 외형적 증가를 하였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²²⁾ 국가의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의 범위 확대 및 욕구 증대가 되었으므로 지속적으로 증가되어야 한다는 내적 요구와 무분별한 확대에 대한 효율성 검토에 대한 외적요구가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기준 등의 법령 및 지침 등 제규정의 준수²³⁾부 확인,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수준의 현주소 점검, 지역아동센터 운영편차에 대한 차²⁴⁾ 등을 살펴보기 위하여²⁵⁾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²⁶⁾ 제기되었다. 동시에 2009년 6월 말까지 신고된 시설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²⁷⁾ 지역아동센터 평가제도의 첫 도입으로 평가준비능력²⁸⁾ 부족하다는 한계점, 지역아동센터별로 다양한 편차가 있으므로 지표별로 특정시설에 유²⁹⁾ 리가 발

1) 이경진, 2003, 「한국 역사기록학과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의 이사」.

2) 빈곤가정아동과 관계하는 역사기록사 기초교육 자료집, 부스리기 사안나눔회.

3) 이태수, 2005,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2005년 한국아동복지학회 제11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아동복지학회.

4) 김미숙, 2006, 「역사기록 빈곤아동 복지 정책 고찰: 지역아동센터 정책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14호, 78-9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보건복지가족부·지역아동정보센터, 2009, 『2009 지역아동센터 운영매뉴얼』.

5) 윤영미·이완정, 2008, 「지역아동센터 레크레이션 활동 참여에 따른 아동의 일상적 정서경과 우울 및 스트레스」, 『한국생활과학』17(5): 903-914, 한국생활과학회.

생활 수 있다는 등의 어·'음·' 제기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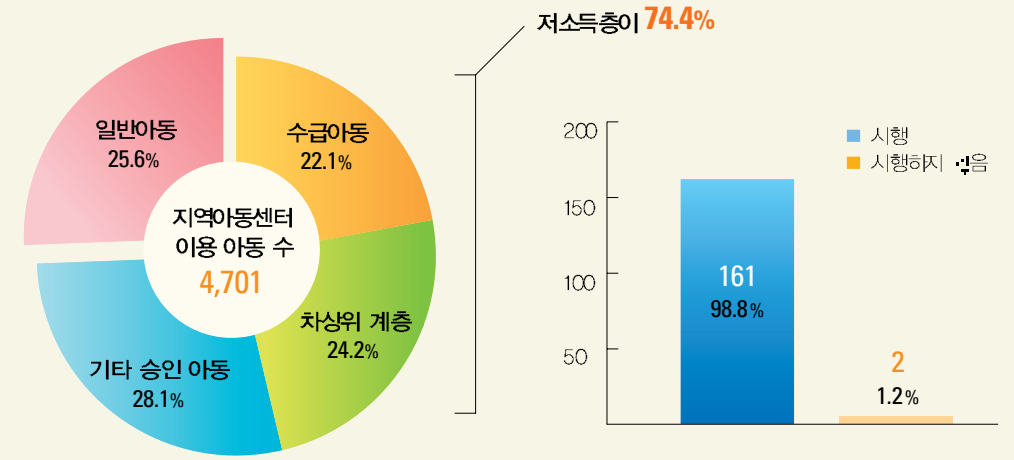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를 중심으로 16개 시·도는 '2009년 지역아동센터 평가사업' 결정되었고, 평가추진체계가 구성되었다. 평가대상 센터는 2009년 6월 30일까지 신고된 시설 중 2010년 정부의 운영비 지원을 신청하는 지역아동센터로, 해당 시·군에 2009년 7월까지 신청을 접수 받아서 결정하였다.

2009년 지역아동센터 평가사업의 목적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책임성 인식 및 서비스 질 향상이다. 즉, 국고지원 시설로서, 운영실·'를 점검하여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시키고 서비스 제공 실·'를 파악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둘째, 시설운영에 대한 자체 점검기회 제공이다. 즉, 평가과정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스스로 설치기준과 목적에 맞게 관리·운영되고 있는 지에 대한 점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지역아동센터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이다. 즉, 중기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지원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검증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단기적으로 2010년 시설지원기준 마련 및 지원 대상기관 선정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2009년 지역아동센터 평가사업의 추진방향을 네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평가위원의 자문과 컨설팅을 통해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운영방식 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는 것이다. 둘째, 정량위주의 평가지표로 평가의 객관성 확보하는 것이다. 셋째, 중앙과 지자체간 역할 분담으로 평가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이다. 즉, 보건복지가족부는 평가기준 마련 및 시·도 담당자 교육 등 총괄지원하며, 지자체는 자체 평가운영단 구성 및 서면·현장 평가 등 실시한다. 넷째, 평가방법은 지역적 특수성 및 센터의 현황을 고려한 평가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하여 충남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인식 및 서비스 질 향상,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자체 점검 기회 제공,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등의 효과가 기대되었다. 2009 충남 지역아동센터 평가사업의 보고서를 완성 후, 충남의 지역아동센터는 기대·'상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된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자체 점검기회를 제공



〈 충남의 163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

〈 지역아동센터 급식 실시 여부 〉

한 것으로 파악된다. 분석결과로부터 도출된 아동복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충남의 163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수는 4,701명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에서 수급아동의 비율은 22.1%, 차상위계층 아동의 비율은 24.2%, 기타 승인 아동의 비율을 28.1%로 총 74.4%에 해당하는 3,496명의 저소득층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163개소 지역아동센터의 98.8%에 해당하는 161개 지역아동센터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충남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읍·면 단위의 아동복지서비스 수요에 대해 지역사회에 밀착되어 학습지원과 급식제공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아동보호와 예방·'는 아동복지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긍정적 측면을 높·'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영역별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제시한다. <아동 및 서비스 영역>에서는 이용아동의 출석률·'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점을 감안하·'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아동의 사레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동사레별 상담, 부모상담 및 교육, 아동결연 등 아동사레관리 프로그램을 체계화하·' 아동의 출석과 관리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 센터의 운영에 정착되도록 함·' 필요하다. 그리고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서 학습 및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과 급식 위생 환경지원의 적절성·'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센터의 기능보강을 강화할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의 인력의 직무에 따 ·' 표준 교육훈련과정을 정책적으로 마련하·' 요구된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기능보강을 위한 공공기관의 지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



2009년 8월 13일 지역아동센터 대상 평가사업 설명회

회 등을 통한 민간지원체계의 협력' 요청된다.

〈인력관리 및 기관운영 영역〉에서는 행정 및 운영관리 부문'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회계관리, 문서관리 등 행정 및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매뉴얼의 개발과 센터 직원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 요청된다. 또한 표준적인 센터의 운영모형을 개발하' 지역별로 시범운영하' 필요하다.

셋째, 지역아동센터의 특성별 평가결과와 평가위원 총평과 관련한 결과를 토대로 요약한다. 면단위에 위치한 센터의 중요성' 부각되었으며, 농·어촌지역의 아동복지서비스가 부족한 환경에서 각종 아동보호·교육·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면단위 지역의 아동' 원거리의 '가서비스를 많' 용하므로 농어촌지역의 센터에 대한 유'비 보조 등 특별지원' 필요하다.

운영주체가 개인인 경우 법인'나 단체인 경우보다 운영상황' 열악함으로 직원에 대한 교육과 연수,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특별한 지도가 필요하다. 설치기간' 길수록, 그리고 서비스 지원시간' 길수록 센터의 아동 출석률과 전반적인 운영' 안정되는 경향' 있으므로 기존 센터의 운영을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지원' 요구된다. 시설장의 상근' 부가 아동의 출석률과 센터운영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시설장의 상근을 의무화하고 실질적으로 시설장의 상근' 루어지도록 지도 감독하' 요청된다.

평가위원 총평에서는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보장, 모범적인 우수센터의 시범지역아동센터 지정과 포상, 일반아동에 대한 실비수납과 '용확대, 면단위 센터에 대한 차량유 '비 지원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원, 센터 업무의 표준화 등' 개선방안으로 제안되었으며 '에 대한 정책적 검토방안' 모색되었다. ☺



마지막으로 신념을 가지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시설장의 운영철학을 소개한다.

나의 초등학교 때가 금방 지나온 것처럼 지금 센터의 아동들도 금방 어른이 되고 말 것이다. 어릴 적의 상처와 경험들은 평생을 가슴에 간직하고 살뿐 아니라 인격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센터에 속한 아동들은 소외와 방치 속에 살아간다. 이처럼 소외와 방치 속에 있는 아동이 건강한 인격형성을 이루며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무엇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돕고 싶어 시작하게 된 일이다. 매우 사랑스런 아동들이 소외와 방치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은 제일 큰 고통이다. 나는 안타까운 아동을 보는 마음의 고통보다, 아동들을 돌보며 다가오는 육신의 힘듦과 고통을 선택하였다. 이런 근본적인 마음으로 시작하였기에 2년간 자비량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앞으로 어떤 힘든 일이 부딪히게 될지 알 수는 없으나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아동들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나의 센터 운영철학이다. 왜? 내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 A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 아동이나 맞벌이 아동들의 보호기관이 아니라 방과 후 친구들과 어울려서 마땅히 해야 할 학습을 하고 새로운 활동들을 배우며, 편안하게 쉬고 급식과 건강까지 제공받는 일상의 모습이고, 터전이라는 생각으로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센터에서의 교제와 배움이 학교와 사회에서도 발휘하여 자긍심과 자존감을 높여 아동 개개인의 내·외적 활동에 발전을 꾀하고자 한다. - B 지역아동센터

- ♥ 빈곤, 취약계층의 아동에게 균등한 교육받을 기회 제공
- ♥ 위험에서 보호받고 건강한 신체와 환경 속에서 자라도록 지원
- ♥ 관심과 사랑으로 타인을 위한 봉사할 수 있는 동기 부여
- ♥ 낮은 자존감 회복과 정체성 확립으로 올바른 가치관 부여
- ♥ 아동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 기회 제공
- ♥ 세계와 나라와 사회와 가정에 꼭 필요한 훌륭한 인재 양성
- ♥ 현실에 불평도 만족도 말고 꿈을 향해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



- C 지역아동센터



2009) 본원 주요행사 화보

베트남 하노이국립대학교외 연구협약체결부터 본원 10주년 행사,
한국정치학회 연구협약체결,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경북여성정책개발원과의
연구교류협약체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협약체결,
아시아 여성교류·연구포럼 연구협약체결까지 -
본원의 2009년 주요 행사를 화보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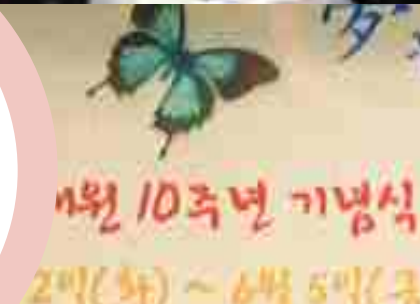
4월

베트남 하노이국립대학교와
연구교류협약체결
(2009. 4. 22, 베트남 하노이국립대학교)



6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10주년 행사
(2009. 6. 4, 본원원 강당)





6월

한국정치학회와 연구교류협약체결
(2009.6.4, 본원 세미나실)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교류협약체결
(2009.7.23, 인터불고 엑스코)

7월



9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연구협약체결
(2009.9.1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본관1층 회의실)



아시아 여성 교류·연구포럼
연구교류협약체결
(2009.11.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본관1층 회의실)

11월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젠더연구소 다문화 관련 간담회

서현주 박사 < 본원 사회복지팀 연구위원 >



이번 본원과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젠더연구소와의 다문화 관련 간담회 개최는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가정 및 그로부터 비롯되는 다양한 교육, 취업, 복지, 시민권 그리고 가정 등 제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정책적 고.가 시급한 상황.는 점과 동시에 영국의 선진 다민족 다문화 경험을 향후 본원의 연구 및 교육사업과 지역. 중앙정부의 .성정책 그리고 다문화 정책 개발에 반영하.야 한다는 시급성. 반영되어 기획되었다.

이번 양측 간의 국제 간담회 개최는 2009년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본원 김경숙 원장 외 일부 연구위원. 참.한 국제학술교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번 국제학술교류 프로그램은 캠브리지대학교 젠더연구소 간담회 .외에도 다민족. 다문화를 기획 .마로 하. 런던 웨스트민스터시 방글 .데시인협회(Westminster City Association for Bangols, London) 및 웹 기반 다민족. 다문화 전문번역서비스 제공 기관인 LASA Multiculti와의 정책간담회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캠브리지대학교 양성연구소 소장인 Jude Browne과의 간담회에서는 선진 유럽국가, 특히 동화주의정책을 표방하는 프랑스와 개인적 다문화주의정책을 표방하는 영국의 경험을 비교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최근 한국의 국제결혼.주.성 문제를 폭넓고 심도있게 다룬바 있다. .기서는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 정리한다.

우선, 정부의 이민정책과 다문화정책간의 관계는 어떠한가에 관한 질문에 대해, 브 .운 소장은 먼저 .법인신매매의 피해자.까지도 .법체 .자로 간주해 취급하고 있는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민정책 및 다문화에 관해, 그는 프랑스와 영국을 비교하. 설명하는 가운데 프랑스는 동화정책(assimilation)에 기초해 시민권을 일단 부.하고 그 후에 프랑스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개인적 권리를 부.하고 그에 따른 종교 및 관습 등의 문제를 프랑스 문화에 동화시켜 나가는 반면, 영국은 .보다는 좀 더 개방적인 방법으로 .문화를 묵인하고 .를 영국 문화 내로 통합(integration)하는 비교적 자유주의적 정책을 취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영국의 .리한 자유주의적 다문화정책은 과거 제국주의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며, 인도나 파키스탄 .민자.의 노동력을 필요로 .던 만큼 .의 문화, 언어, 종교 등 관습을 영국 땅 내에서도 일정 부분 허용해왔고 .는 현재까지도 .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영국에서는 냉전 .후 러시아, 특히 폴란드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 .으나, . 폴란드 노동자.은 임금을 모두 본국으로 송금하고 자국의 경제력. 어느 정도 나아지자 .국하였으며, 그 .후로는 또 다른 동유럽 국가 외국인 노동자. 유입되고 있는 추세.다. 결론적으로 그는 유럽에서의 인구의 .동은 정부가 어떠한 강력한 .민정책을 취하더라도 막을 수 없는 .가피한 것.였음을 역설하였다.

따 .서 브 .운 소장에 따르면, '영국' .는 정체성은 .리한 다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에 대한 영국 백인 시민.의 반발도 있어왔는데, 그 극단적인 .가 바로 최근 유럽의회 선거에서 BNP(British National Party, 유색인의 정당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영국의 인종차별주의

적 극우보수정당)가 2석을 차지한 것.고 지적하였다. 그는 .리한 현상은 경기침체로 인해 저임금 노동력의 대부분을 외국인노동자에게 .았겠다고 생각하는 영국백인의 .론을 반영한 것.고도 볼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브 .운 소장은 프랑스정부는 동화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단적인 .가 바로 학교에서 무슬림 학생의 두건 착용을 금지하는 것.며, 그 저변에는 반(反)-다문화주의 성향.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마디로, 프랑스시민.면 프랑스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다. 그는 .로 인해서 프랑스사회는 인종적으로 매우 격리(segregated)된 사회.며, 몇 년 전 아프리카인.의 거리시위에서도 보듯. 많은 사회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이민여성의 정착과정에서의 문제점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브 .운 소장은 .성. 진정한 사회의 일원. 되.면 교육과 직업을 통해 자아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성. 직업을 갖는 것.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와 관련해서, 그는 문제는 .민.성 스스로가 일하는 것을 원하는가, 그리고 .성. 속한 사회가 그것을 허용하는 것.고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브라운 소장은 한국 남성과 결혼한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의 상황을 본원 측에 질문하였고, 본원 연구위원들은 한국의 농촌은 아직까지도 2, 3세대가 한 집에 함께 사는 문화적 전통을 간직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한국 농부에게 결혼해서 온 동남아 여성이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를 설득해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서 브라운 소장은 관건은 이민 여성의 직업을 가지게 할 경우, 법·제도적으로 이것 가능하게 하는 문제와 여성 본인 속한 사회가 문화적으로 그것을 허용하는가의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그에 따르면, 법적으로 영국은 외국인 여성이 영국인 남성과 혼인하는 경우 곧바로 영주권 주어져 혼인 후 2년간 노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자동적으로 주어진다.

더 나아가, 혼인 후 2년 후에도 혼인 유지되는 경우 영국시민 될 수 있는 자격 주어진다. 혼인 파탈 시에는 직업권도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본원 측에서는 한국의 경우 이전에는 혼인과 동시에 한국 국적 취득 가능하나 지금은 국적법 개정으로 인해 영국과 동일하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문화적으로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는 결혼 이민 여성의 직업권은 보장되기 힘들다는 점에 상호 공감하였다.

다음으로,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의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브라운 소장은 영국도 1995년에야 가정폭력을 법으로 금지하고 피난처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영국에서 "다문화주의가 여성에게 해롭다"는 주장은 빈번히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여성 억압적인 이슬람문화 등을 영국 사회 내에서 허용하고 묵인할 경우, 이민 여성은 그 사회를 결국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계속 억압적인 환경 내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 문화가 가정 내 구조 속으로 이어갈 경우 국가의 간섭이 더욱 어려워진다고 하였다.

본원 측은 한국사회가 양성평등을 어느 정도 이루었는가가 앞으로 다문화사회에서 발생하는 성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출발점이 될 것임을 강조하였는데, 이에 대해 브라운 소장은 영국에서 남녀간 육아휴직제도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유럽 법원(European Court of Justice)의 Hoffman 사건이 유명한데, 유럽은 1980년대 중반까지도 전통적으로 breadwinner인 남성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 것을 거부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본원 측은 한국에서는 남녀 동등하게 육아휴직 주어지나 (1년까지), 이것은 다만 법적·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현실은 다른 문제임을 설명하였다.

한편, 본원 측은 현재 한국 농촌에서 몇몇 사기업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 예컨대,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의 젊은 여성과 돈을 대가로 한 결혼은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일종의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하였다. 이에 대해서, 브라운 소장은 동 문제를 포함하여 한국 내 국제결혼 이민 여성의 가정 내 지위 및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종의 인신매매적 성격을 띠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현지 실태조사 및 이에 대한 국제공조를 통한 모니터링 및 관련 법제도의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여야 한다.

둘째, 국제결혼 이민 여성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며 필요한 접근방법으로 outreaching peer contact educational system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이민이 모든 사회적 인식 확립된 성인 결혼 이민자를 교육의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그들의 자녀를 교육의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민자에게 다양한 다문화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국제결혼이주 여성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출발점은 그들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넷째, 가장 중요하게, 현실의 상황에 따른 정책대안 제시도 중요하지만, 한국, 특히 충남의 경우 추상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인 다문화정책의 방향성 모색이 대단히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브라운 소장은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의 다문화 관련 연구 및 문제의식에 크게 공감하면서 두 기관이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의 실질적 협력 여부를 타진하였다. 이견대 상호 기관간의 다문화 가정 현지 실 조사 등에서의 공동연구 진행 가능성 등이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이 소속한 시일 내에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하였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교육 Program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여성들의 보다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었다. 실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여성들은 각 현장에서 한층 업그레이드 된 능력을 발휘하며 오늘도 활약하고 있다.

-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원 보수교육
- 사회복지서비스종사자 다문화업무능력 배양교육
- 국제결혼 (배비)남편교육
- 중년기 여성결혼이민자 리더 및 멘토 육성 교육
- 다문화 한국어강사 양성 교육



또한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교육은 단순한 강의가 아닌 | 교육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고, 프로그램은 한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어 상담원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는 시간이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상담원의 역량 강화되었음은 물론 피해자의 지원을 보다 향상시키는 기회가 되었으리 본다.

●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원 보수교육

증가하고 있는 성에 대한 폭력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상담원 보수교육이 2차례에 걸쳐(가정폭력 상담원교육 : 2009. 5. 27~29, 성폭력상담원교육 : 2009. 10. 13~15) 실시되었다.

상담원에 대한 보수교육은 본원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상담기법과 전문성을 갖춘 상담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심층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상담원의 욕구를 반영한 연구(제목: 충남 가정·성폭력 등 권익증진 시설 상담원 교육프로그램 개발)를 근거로 상담원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강사진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



| 프로그램 구성 |

구 분	주 제	주요내용
전반적인 여성문제 이해	생활 속 여성운동	- 여성문제를 사회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여성심리	- 여성심리 여성주의 관점에서 여성심리 이해
여성주의 상담	여성주의 상담 이해	- 여성주의 상담의 필요성 - 여성폭력과 여성주의 상담
	상담기법 실습	- 성역 분석 - 권력분석 - Grouping & feedback
심층 상담기법	상담 슈퍼비전	- 상담사례를 통한 슈퍼비전
상담 사례 분석	성폭력 사례분석	- 상담유형별 특성과 사례

● 사회서비스종사자 다문화업무능력 배양교육

다문화사회의 도 '를 대비하'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다문화 업무 능력' 향상될 수 있도록 3차에 걸쳐 사회서비스종사자 다문화 교육' 실시되었다. 교육대상은 다문화가정과 업무관련성' 높은 보건소, 보육시설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자로서 '다' 다문화를 올바르게 '해하고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 있다.



구 분	일 시	교육대상
1차	2009. 9. 24~9. 25	보건소 담당자
2차	2009. 10. 10~10. 17	보육시설 종사자
3차	2009. 11. 5~11. 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교육은 기본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해와 담당자가 현장에서 어떻게 다문화를 적용할 것인가에 초점' 맞추어져 있다. '번 교육을 통해' 보건소, 보육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종사자의 다문화에 대한 서비스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 세부교육내용 |

구 분	교육내용	비 고
공통 프로그램	다문화에 대한 이해	
	충남 '다문화 '상황과 과제	
	다문화가정 사례 발표	
	담당자 사례 발표	
대상자별 프로그램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관리	보건소 담당자
	유아를 위한 다문화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다문화 프로그램 기'과 실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종사자

● 국제결혼 (예비) 남편교육



국제결혼 '예비자 및 결혼 초기 남성'에게 '우자나]에 대한 '해와 소통방식 등에 대한 '해를 통해' 보다 원만한 결혼생활' 되도록 국제결혼 (예비) 남편교육을 실시하였다.

구 분	일 시	교육대상 지역
1권역	2009. 6. 1	논산, 계룡, 부여, 금산
2권역	2009. 6. 20	아산, 천안; 공주, 연기
3권역	2009. 6. 21	당진, 태안; 서산, 예천
4권역	2009. 7. 14	홍성, 보령, 청양, 서천



교육내용은 국제결혼을 한 남성들이 알아야 할 사항으로 국제결혼에 대한 이해, 국제결혼시 알아야 할 법률, 부부간의 성, 국제결혼 사례 등으로써 남편들이 알아야 할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을 통하여 국제결혼 예비자와 남편들이 국제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국제결혼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이해를 하는 시간이 되었다.

● 중년기 여성결혼이민자 리더 및 멘토 육성 교육

본원에서 주최하는 <중년기 여성결혼이민자 리더 및 멘토 육성 교육>는 지난 8월 27일과 28일, 1박 2일에 걸쳐 청양군에 소재한 군포시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은 충남 도내 각 시군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2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지역의 다문화사회 현황을 접하고, 다른 결혼이주여성의 멘토 및 리더로서 역할하기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번 교육은 두 가지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처음으로 충남도내 각 시군 지역에 거주하는 리더급 결혼이주여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 리더 및 멘토 교육을 받았다. 둘째, 결혼이주여성들이 이주주민으로서의 삶과 더불어 여성으로서의 삶에 대해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다문화사회를 살아가는 여성으로서의 삶의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이 끝날 무렵 교육생들은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출신국가 및 활동지역에 관한 유익한 정보교류의 계기를 가지게 됨을 기뻐하였으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 다문화 한국어강사 양성 교육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서 주최하는 <다문화 한국어강사 양성 교육>는 지난 4월에 1차 교육을 마친 후, 9월 21일 2차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이번 교육은 다문화관련 연구와 교육 역량을 구축하고 있는 본원 다년간의 한국어강사 양성 경험을 축적한 선문대학교 한국어교육원과 연계하여 양기관의 역량을 결집시켜 다문화가정 대상 한국어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봄과 가을에 걸쳐 총 44명의 충남여성들이 120시간의 한국어교육방법과 6시간의 다문화관련 소양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

참가자 대다수가 현재도내 각 지역에서 다문화가정 대상 한국어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로서 주중 교육이 어려운 입장에 있었다. 따라서 소양교육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육은 주말을 끼어서 금, 토, 일 삼일 동안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매우 고된 교육일정이었으나 대다수 교육 참가자들은 자신의 교육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진지한 자세로 교육에 임했다. 교육과정에서 만난 각 지역 한국어강사들은 서로의 교육경험을 나누며 더욱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결의를 다졌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은 이번 과정을 통해 다문화사회에 적합한 다문화주의적 한국어교육이 실현되길 기대한다.



지역여성
수상소식



Prize Awardee

**‘자랑스러운 충청인대상’ 수상한 ㈜놀부NBG 김순진 회장
충청인의 긍지와 명예를 드높인 ‘자랑스러운 충청인대상’
(주)놀부NBG 김순진 회장 수상**

2월 10일, 충청도 출신 인사의 모임인 충청향우회에서 주최한 ‘자랑스러운 충청인대상’에 종합외식기업 (주)놀부NBG 김순진 회장이 선정됐다. ‘자랑스러운 충청인대상’은 매년 충청인의 긍지와 명예를 드높인 충청도 출신 인사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상으로 그동안 전 서울대 정운찬 총장을 비롯해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 미국 메이저리그의 박찬호 선수 등이 수상한 바 있다. 충청향우회측은 “충남 논산 출신인 (주)놀부NBG 김순진 회장은 국내외 640개의 가맹점과 외형매출 6천억 원의 (주)놀부NBG를 창업, 경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여성기업인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국내 토종브랜드 놀부의 성공신화는 물론 한식브랜드로 중국, 일본 등 해외시장으로의 적극적인 진출을 통해 우리 음식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국위선양에 기여한 공로로 올해의 수상자에 선정됐다”고 덧붙였다.



**‘용신봉사상 수상’ 한 조선희 씨
여성과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 노력한
조선희 씨, 용신봉사상 수상**



11월 3일, 서울 올림픽 펜싱경기장에서 제45회 전국여성대회를 맞아 대전·충남 지역 여성계의 대모로 손꼽히는 조선희(72) 씨가 용신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난 1968년, 여성과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 일하고자 충남 지역의 청소년 자원봉사로 시작한 그녀는 그 후 42년 동안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을 위해 외길을 걸어왔다. 특히 대전·충남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한국 걸스카우트의 수장인 제19·20대 총재를 역임한 업지전적인 인물이기도 하다. 한편, 그녀가 수상한 용신봉사상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지난 1964년 소설 ‘상록수’의 실제 모델이기도 한 여성 농촌 운동가인 최용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상으로 해마다 시상하고 있다.



**예산군 신순천 씨, 제16회 ‘도의새마을여인상 수상’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 사회 만들기에 힘쓴
예산군 신순천 씨, 도의새마을여인상 선정**

지난 10월 16일, 제16회 도의새마을여인상에 예산군 대술면 부녀회장 신순천 씨(45)가 선정됐다. 그녀는 새마을지도자로 일하던 남편을 불의의 사고로 뇌사상. 3년 만에 앓고 혼자서 500여 평으로 밭소 50마리와 논 13,223㎡를 경작하며 50과 마을이 점점 지쳐가고 있을 때 마을 어르신들의 추천으로 마을 부녀회장에 선임되었다. 이후 농번기를 제외한 시간에 취미활동으로 할 수 있는 품목을 익혀 2007년도엔 본인 집 창고에 품물연습장을 만들어 주 2회씩 30여 명에게 품물을 가르쳐주고 있다. 한편, 도의새마을여인상 시상제도는 여성으로서 남다른 애향심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특히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룩하는 등 사회에 귀감이 되는 여인상을 발굴하기 위해 1994년부터 제정·시행한 시상제도이다.



**천안시청 박연호 씨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표창’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한
천안시청 박연호 씨,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표창 수상**

충청남도 천안시는 천안시청 여성과 박연호(33) 씨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8월 3일 밝혔다. 박연호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노인 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역 116개소의 노인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고 2,370명의 요양보험 신청자 중 2,222명의 등급 판정과 549명의 요양시설 입소를 통해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치원여중, 전국 여중생 수학탐구 발표대회 1위

**제1회 전국 여중생 수학탐구 발표대회 ‘신나는 수학! 창의력의 날개를 펴라!’
조치원여중 송다희, 이남호, 이아름 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수상**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여자중학교(교장 조재영)는 8월 17~18일 양일간, 이화여자대학교 ECC에서 실시된 제1회 전국 여중생 수학탐구 발표대회(WISE센터 주최)에서 1위(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실시된 대회는 ‘신나는 수학! 창의력의 날개를 펴라!’ 라는 모토 하에 수학에 대한 여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제고하고 여학생의 이공계 대학 진학 계기 및 차세대 우수 여성 수학자를 제공하며 이론 및 체험을 바탕으로 WISE(Women Into Science and Engineering)센터에서 실시됐다. 지도교사(황정연)와 선발된 학생 3명(송다희, 이남호, 이아름)은 지난 3개월에 걸치는 기간 동안 방과 후 시간 및 방학기간을 활용해 ‘재활용품 활용 수학 교구 만들기를 통한 수리논술능력 향상’이라는 ‘제1회 창의적인 수학적 산출’을 통해 서로 토론하며 활동을 해왔다.



충남여성포럼 30회
(2009. 7. 10, 당진군)
주제 | 충남여성의 정치참여



지역여성계소식
**충남
여성포럼**

충남여성의 복지증진 및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및 자문, 충남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적 역할 제고를 목적으로 설립된 충남여성포럼. 지난 2001년 5월부터 시작된 충남여성포럼은 지금까지 31차에 걸친 토론회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정치참여방안,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충남여성포럼 29회
(2009. 4. 24, 태안군청)

주제 | 농촌 여성의 농촌 관광산업 참여 방안



충남여성포럼 31회
(2009. 11. 12, 천안시청 중회의실)
주제 | 경제위기 가족역량 강화와 지원방안 토론

세상의 편견 넘어 당당히 걸어나가다!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청남도 천안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여기에 지난 2003년부터 충남지역 여성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노력해온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다. 꿈이 아닌 권리로 여성과 장애, 지역이라는 심층의 고통을 겪으며 무성(無性)의 존재로 인식되어 온 충남 지역 여성장애인들의 희망찬 삶을 위해 충남여성장애인연대는 오늘 하루도 바쁘게 뛰고 있다.



●●● 충남여성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달려다!

충남지역 여성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충남여성장애인연대는 2001년 결성된 단체로 2003년 7월 창립식을 통해 정식으로 출범을 했다. 현재 이곳에서는 여성장애인 교육 사업을 통해 자립생활 의지를 고취하며 여성장애인의 잠재된 기술을 찾아 취업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경증가사도우미사업과 정기적인 장애인부모모임을 통해 취업전선에서 현실적으로 제외된 당사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밖에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소식을 발간하는 기관 소식을 공유하고 잠재된 인적·물적 자원 개발을 통해 복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 장애인 이동권(移動權)을 아시나요?

여성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가장 중요시 하는 점 무엇인지를 묻는 물음에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심상진 대표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장애인 이동권(移動權)이라고 말한다.

“국민이면 또는 시민이면 누구나 용하게 되어 있는 대중교통 시설은 장애인에게만은 구경거리일 뿐입니다. 교통 시설 용에 나타나는 차별은 장애인에게 실현할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욕구를 원천적으로 제거시키는 것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이란 단지 교통시설에서의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서 이동은 필수 수단이며 삶에 있어는 것. 지난 2007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도입되었지만 대체로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 더 많고 아직 현실화되지 못하기에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사회적인 인식제고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한다.



대원들이 정성을 들여 직접 만든 손거울이 앙증맞다.

●●● 위풍당당! 화려한 그녀들의 외출

지난 10월 8일 천안시청 야외공연장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은 '2009 여성장애인 문화나눔축제-화, 한 외출' 바로 그것. 새색시처럼 고운 드레스를 차, 입고 휠체어를 탄 중년의 패션쇼 모델은 이번 행사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했다. 또한 이번 패션쇼는 여성면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아름다움까지 외제 당하는 여성장애인에게 '우리도 얼마든지 아름다울 수 있다'는 당당함을 사회에 인식시키는 중요한 시간이기도 했다.

●●● 충남여성장애인이여, 무소의 뽕처럼 당당하게 나가라!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목표를 묻자, 심상진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재가장애인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 사회생활의 기회를 받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희망찬 심상진 대표의 바람처럼 충남여성장애인연대와 지역사회의 노력에 힘입어, 사회와의 접촉점 없이 단절된 생활을 하던 여성장애인들이 하루 미리 성과 장애인은 중 심층의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여성장애인들이 희망을 품고 발전하는 그날까지 곁에서 힘이 되어줄 충남여성장애인연대 모든 분에게 힘찬 응원을 보낸다.





태안 천리포수목원

바다내음 머금고, 꽃향기 드리우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태안 천리포수목원
시야를 시원하게 해주는 너른 바다와
새로운 기운을 불어 넣어 주는 숲의 중간 세계.
천리포수목원은 자연의 숨결로
재충전 해주는 서해안의 푸른 보석이다.

천리포해수욕장과 맞닿아 있는 인공 수목원이지만,
그 자리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손을 니지 않은 자연스러운 풍광에 탄성비 절로 터진다.

40년 동안 전문가나 회원이 아니면 볼 수 없었던 비밀정원.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숲이 아닌 나무를 위한 숲이었던 이곳을
이제 온 가족이 만나 볼 수 있다.



세계의 아름다운 수목원, 2000년 국제수목학회 '세계의 아름다운 수목원' 인증
수목원전문가 양성·교육장, 국내 최초 수목원 전문가 양성과정 실시 및 인증
국내외 멸종위기 야생식물 보유, 섬개야광나무 및 가시연꽃 등 국내외 멸종위기 식물 국내 최대 식물종 보유
국내 국·공·사립 수목원 중 최다 식물종 보유



2010 세계대백제전 천년 시공을 넘어 세계를 향한 백제의 꿈이 펼쳐진다!



다시 한 번 화려한 날개짓이 시작됐다.

[2010 세계대백제전]을 통해 백제문화제가 중국, 동남아시아, 일본을 잇는 고대문화의 전파자 대백제의 명성과 새로운 천년을 향한 문화의 찬란함을 다시 피어낸다. 50여 년을 이어 온 역사 깊은 전통축제이자 대한민국의 대표적 역사문화축제인 백제문화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2010 세계대백제전]이 빛어낼 다양한 세계 문화예술과 첨단기술의 조화가 전해 줄 세계를 향한 벅찬 감동의 숨결을 먼저 만나본다.

문의 | 2010세계대백제전 조직위원회 041-857-6957
홈페이지 | www.baekje.org



세계를 만나 더욱 화려하게, 더욱 융성하게

백제금동대향로, 환두대도, 왕릉사지 출토 사리함. 백제의 문화유산은 새롭게 발굴되고 조명될 때마다 신비함을 더해 백제인들에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킨다. 온화하고 너그로우면서도 단순하고 소박한 듯 하면서도 치는 세련미 발산하는 백제문화제는 다가설수록 새로운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이는 백제가 문화적 개방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외래문화 적극 수용하여 독창적인 문화 이루고 전파하는 등 고대 동아시아의 문화 있어 초월적인 감각을 지녔음을 나타낸다. 이제 천년의 세월에도 거침없이 사랑받는 백제문화제가 전 세계인을 하나로 묶는 감동의 문화대제전으로 발돋움한다. 충청남도 관광교유협력 자치단체인 일본 나라현과 함께 '헤이조(平)천도 1300년 제(公) 공동협력사업'을 통해 세계적 축제로 거 나하는 동시에 20개국의 세계역사도시연맹 회원도시, 백제 교류국, 자매결연도시가 참여한 세계 미술단공연으로 각 도시의 다양한 미술세계로 초대한다. 또한 세계역사 도시 전시관을 통해 세계 네마별로 구성된 고대문화와의 만남의 장을 마련한다.

역사의 공간과 자연경관이 펼쳐는 파노라마

옛 백제의 왕도인 공 부여에서 펼쳐지는 '백제문화제'가 2007년 통합 개최된 이후, 2010년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한다. 대한민국 중심 축제로 50여 년 간 이어온 백제문화제 계승 발전시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세계적 역사문화축제로 꾸며진다.

공의 금강 둔지, 축제 마당, 고마나루, 공산성에서는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새로운 백제 느낄 수 있도록 설치미술과 조명작품이 이치는 금강 줄기와 상통하며 자연에 새 생명을 수놓는다. 부여의 백제역사재현단지, 낙화암, 왕흥사지, 구도광장, 공남지 통해 백제의 문화 원형과 전통의 재발견이 조명될 수 있도록 역사 공간의 의미와 가치가 살아날 수 있는 생동감이 웅장하게 동한다. 이외에도 충남 곳곳에서 백제의 정신과 문화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들은 고대 백제와의 시공을 초월한 네트워킹을 시도한다.

첨단기술을 만난 역사 스토리텔링의 생생함

2010 대백제전의 가장 큰 특징은 세계의 문화예술과 첨단기술이 펼쳐는 다양한 포맷의 생생한 스토리텔링에 있다. 공 고마나루에서 펼쳐지는 판타지 포맷 '백제열전', 부여 수상 미디어 포맷 '낙화암의 달빛'은 짜임새 있는 백제 이야기에 문화적 상상력으로 다이내믹한 구성을 더하고 첨단기술을 조화시켜 화합과 신비함으로 세계정상의 볼거리 제공한다. 또한 백제 유물 유적 디지털 복원전을 통해 깊이 있는 아름다움을 세세히 느낄 수 있으며 현대적으로 재조명된 가치 살필 수 있다. 이외에도 웅진성·사비성의 하루, 공방촌 예술체험, 마상무예시, 황산벌 전투 재현, 기지시 줄다리기 등 생생함을 물씬 느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세계인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1. 사비천도안렬 2. 국제문화교류전(중국공연) 3. 백제 등불제 4. 기마군단 거리안렬 5. 웅진성 퍼레이드

우리 지역, 우리 고향 ■ ■ ■ ■ ■ ■

충청남도 특산물

말로는 다 표현 못하는 매력적인 맛 사각거리는 감칠맛, 남당함 새조개

새조개? 이름에 붙은 '새'는 날아다니는 새(鳥)다.
조갯살 모양이 부리가 긴 새를 연상시켜서 붙은 이름이다.

그 독특한 모양만큼이나 일품인 맛에 인기가 치솟아 매년 1월 중순이면 홍성군 남당항에서는 새조개 축제가 열린다. 11월 초 나기 시작해 3월까지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는 어민들의 소득원이자 미식가들의 즐거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새조개의 진정한 매력은 당연지사 그 맛이다. 사각거리는 육질의 상쾌한 촉감과 풍부한 핵산에서 나오는 은근 달콤한 감칠맛이 표현하기 쉽지 않은 맛을 전달한다. 새조개의 맛은 뒤늦게 알려진 데는 일본 업자들도 대부분 사갓기 때문일 정도로 살짝 데친 새조갯살은 일본에서 초밥재료로 인기가 높다. 조개는 대부분 끓여 먹거나 삶아 먹는데 새조개는 '샤브샤브'로 데쳐먹어야 제 맛을 느낄 수 있다. 새조개는 다른 조개에 비해 가격이 비싼데 그 이유는 100% 자연산이기 때문이다. 맛깔스럽게 우려낸 새조개 국물에 면까지 끓여 먹는다면 확실한 마무리가 될 것이다. 씹살한 갯벌산채와 함께 맛보는 새조개는 일품진미, 확실한 바다의 맛이다.



수출까지 하는 효자 품목 시원하고 깨끗한 조치원배

조치원하면 복숭아가 먼저 떠오르지만 이제는 배를 먼저 떠올릴 듯하다.



지난 8월부터 생산되는 조치원배는 수년 전부터 대만으로 수출되는 효자 품목으로 조치원농업협동조합에서는 지난 2006년도에 105톤을 수출한 이후 올해는 200톤을 수출할 정도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조치원배는 다른 지역보다 지리적으로 우수한 위치에 있어 토질이 비옥하고 황토질의 사질양토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기후가 온난하고 일조량도 풍부하고 과육도 풍부하고 당도가 높다. 밝은 황갈색으로 과면이 매끄럽고 고우며, 과피는 얇고 각질은 유연다즙하다. 육질이 부드럽고 향이 뛰어나며 식세포가 미세해서 씹은 후 섬유질이 남지 않아 뒷맛이 시원하고 깨끗하다. 시원한 과즙이 일품인 배는 갈증을 없애고 숙취를 해소하는 일등공신으로 한국을 상징하는 우리의 대표 과일 가운데 하나다. 특히 생식용으로 많은 사랑을 받기도 하지만 다양한 요리에 감초처럼 쓸 수 있는 과일이기도 하다. 고기를 찔 때의 배즙은 육질을 연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다. 특히 기압진 고기를 먹고 난 뒤의 배 한 조각은 입 안을 청결하게 하는 데 제격이다.

비타민의 보고, 보약이 따로 없네~ 쫄득하고 부드럽게, 양촌 꽃감

풍성한 햇볕과 늦가을 북서계절풍이 강하게 들어 통풍이 잘 되고
높은 일교차와 안개로 그 쫄득쫄득한 맛이 살아있는 양촌 꽃감.

경북 상주, 충북 영동과 더불어 전국 3대 꽃감 생산지로 유명한 충남 논산시 양촌면은 일 년 내내 햇빛이 비친다는 양촌의 특산물처럼 대둔산을 타고 내온 풍부한 비랍으로 최적의 꽃감 생산지로 꼽힌다. 이런 천혜의 기후 속에서 자란 꽃감의 당도와 비넨성분이 많으며 색깔을 내기 위해 유향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감떡(꽃감떡장)에 두 달간 매달아 자연 건조한 반건사는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다. 꽃감은 비타민 C가 풍부해 감기 예방에 좋고 간장 활동을 도와 숙취방지에 그만이다. 또한 비넨이란 주요 성분은 설사나 위궤양에 좋고 빈혈과 저혈압에도 효과적이다. 피부에 탱탱한 탄력을 주는 비타민 A까지 풍부해 말 그대로 보약이 따로 없다. ☺



Book Cafe



작가 | 민가영
출판 | 산재상

/ · 으로 만나는 여자 이야기 1 / 여성학 이야기 - 인어공주는 왜 왕자를 죽였을까?

이 책은 여성학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성의 다양한 시선을 통해 그동안 평범했던 세상을 다르게 읽어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우리는 대개 인어공주가 왕자를 죽이지 않고 거품이 되어 사라지는 것을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라 말한다. 하지만 사람의 감정이 다양하듯, 동화를 읽은 후의 반응도 다양할 것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익숙한 사건이나 이야기가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흥미롭게 전개하면서, 인식이 자유로워질수록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내용을 축약한 그림과 다양한 그래픽 및 사진 등을 통해 지루함을 덜어 주는 배...도 아끼지 않았다.



/ · 으로 만나는 여자 이야기 2 / 여성과 남성이 다르지도 똑같지도 않은 이유

우리가 흔히 여성과 남성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 반박하는가하... 그렇다고 남성과 여성을 똑같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다. 저자는 남녀를 비교하는 것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남성위의 통념과 여자와 남자들의 삶에 끼치는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저자는 항상 객관적인 듯 했던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평가기준이 보편적인 남성이었다고 주장하며, 남성성과 여성성의 차이를 생산하고 그로부터 불평등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서로 다르지만 불평등하지 않은 남성과 여성이 더불어 살아가기를 꿈꾼다.



작가 | 키울 타브리스
출판 | 또하나의문마



작가 | 김미경
출판 | 위즈덤하우스

/ · 으로 만나는 여자 이야기 3 / 성공과 실패에서 배우는 여성 마케팅

불황에도 왕성한 구매력을 자랑하는 소비층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날카로운 시각이 담긴 책이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어떻게 생각으로 쇼핑을 하며, 어떤 기준으로 물건을 고르는지 그 심리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의 마케팅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남성들이 접한다면 조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으나, 여자들에게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 당연한 이야기로 들린다.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기까지의 복잡한 여성 심리와 행동패턴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여성의 구매 심리를 연구해 온 저자는 여성 고객의 심리적 특성을 관계·멀티·스토리·이벤트 포커스 등의 4가지로 나누고 사례들을 정리해 여성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전략도 실어놓았다.



○ 여성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충남여성」은 여성들과 전국의 여성관련 기관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충남여성」이 여성들의 의식화와 정보화를 이끌고
여성발전의 주춧돌로 자리하기 위해서 여성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글의 종류는 논문형식에서 생활수필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의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면 모두 환영합니다.
여성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보내실 곳 |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191-5 충청남도여성성서개발원
전화) 042-425-1423 팩스) 042-425-2461

